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9436

2009 年 11 月
碩士學位論文

야생화 문양을 응용한 도제 찻상 개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産業工藝學科
김 광 숙

야생화 문양을 응용한 도제 찻상 개발 연구

A Study in Development of Ceramic Tea-Table applying wild flower patterns

2009 年 11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産業工藝學科

김 광 숙

야생화 문양을 응용한 도제 찻상 개발 연구

指導敎授 서 경 석

이 論文을 美術學碩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 年 11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産業工藝學科

김 광 숙

김광숙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조　규　춘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한　선　주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서　경　석 印

2009 年　11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 1

제1절.연구목적 ····· 1

제2절.연구방법및범위 ····· 2

제 2 장. 본 론 ····· 3

제1절.차의 근원과 시대적 배경 ····· 3

제2절.차도구의 일반적 의미와 종류 ····· 5

제3절.찻상(茶床)과 소반의 일반적 고찰 ····· 8

1. 찻상의 역사와 종류 ····· 8

2. 찻상으로서의 소반 ····· 9

제4절.도제 찻상의 일반적 고찰 ····· 12

1. 우리나라와 중국 찻상 비교 ····· 12

2. 여러 작가의 찻상 형태 ····· 14

3. 찻상의 장단점 비교분석 ····· 18

제5절.여러국가의식물문양 ····· 19

1. 우리나라 ····· 20

2. 일본 ····· 21

3. 중국 ····· 22

4. 그 외 국가 ····· 23

제6절.작품 제작 및 설명 ····· 25

1. 작품 계획 ····· 25

2. 작품 제작 과정 ····· 26

가. 소지 ····· 26
나. 유약 ····· 26
다. 성형 및 건조 ····· 27
라. 제작 과정 ····· 27
3. 작품 설명 ····· 28

제 3 장. 결 론 ····· 74

참고문헌 ····· 75

〈그림목차〉

<圖 1> 심종승-蓮 다상 1 ····· 15
<圖 2> 천미선-바늘땀찻상 ····· 15
<圖 3> 이웅재-석류문찻상 ····· 15
<圖 4> 이웅재-당초문찻상 ····· 15
<圖 5> 이웅재-연당초문푼주 ····· 15
<圖 6> 제갈무용-작품1 ····· 15
<圖 7> 제갈무용-작품2 ····· 15
<圖 8> 제갈무용-작품3 ····· 15
<圖 9> 제갈무용-작품4 ····· 15
<圖 10> 제갈무용-작품5 ····· 15
<圖 11> 김희진 作 ····· 15
<圖 12> 최은지 作 ····· 15
<圖 13> 심종승-蓮 다상 2 ····· 16
<圖 14> 심종승-蓮 다상 3 ····· 16
<圖 15> 심종승-蓮 다상 4 ····· 16
<圖 16> 심종승-蓮 다상 5 ····· 16
<圖 17> 심종승-蓮 다상 6 ····· 16
<圖 18> 천미선-선비찻상 ····· 16
<圖 19> 천미선-다듬이돌찻상 ····· 16
<圖 20> 천미선-팔각연꽃문양찻상 ····· 16
<圖 21> 천미선-부채꼴찻상 ····· 16
<圖 22> 천미선-꽃살문찻상 ····· 16
<圖 23> 이웅재-포도문찻상 ····· 16
<圖 24> 이웅재-무궁화문찻상 ····· 16

<圖 25> 이웅재-찻상 ····· 17
<圖 26> 제갈무용-작품6 ····· 17
<圖 27> 이은상-작품1 ····· 17
<圖 28> 이은상-작품2 ····· 17
<圖 29> 박옥경 作 ····· 17
<圖 30> 이충광 作 ····· 17
<圖 31> 이동면 作 ····· 17
<圖 32> 조주연 作 ····· 17
<圖 33> 이세용 作 ····· 17
<圖 34> 송팔영 作 ····· 17
<圖 35> 손은혜 作 ····· 17
<圖 36> 오계희 作 ····· 17

〈표목차〉

<표 1> 다구의 명칭과 모양 ····· 7
<표 2> 소반의 여러 종류 ····· 11
<표 3> 전통 소반과 현대 소반의 흐름 ····· 12
<표 4> 전통 소반과 현대 소반의 특성 비교 ····· 13
<표 5> 우리나라와 중국의 찻상 ····· 14
<표 6> 우리나라와 중국의 찻상 비교 ····· 14
<표 7> 형태별 제작 방법 비교 ····· 18
<표 8> 찻상의 장단점 비교 ····· 20
<표 9> 우리나라의 식물문양 ····· 21
<표 10> 일본의 식물문양 ····· 23
<표 11> 중국의 식물문양 ····· 24
<표 12> 그 외 국가의 식물문양 ····· 25

〈작품목차〉

<작품 1> 잔대 찻상 ····· 31
<작품 2-1> 산 오이풀 찻상 2-1 ····· 36
<작품 2-2> 산 오이풀 찻상 2-2 ····· 38
<작품 3> 현호색 찻상 ····· 42
<작품 4> 엉겅퀴 찻상 ····· 46
<작품 5> 복주머니란꽃 찻상 ····· 50
<작품 6> 금낭화 찻상 ····· 54
<작품 7> 제비붓꽃 찻상 ····· 58
<작품 8> 참취꽃 찻상 ····· 62
<작품 9-1> 연꽃 찻상 9-1 ····· 66
<작품 9-2> 연꽃 찻상 9-2 ····· 68
<작품 10> 할미꽃 찻상 ····· 72

ABSTRACT

A Study in Development of Ceramic Tea-Table applying wild flower pattern

Kim, Kwang-sook
Advisor : Prof. Seo, Kyung-seok
Department of Industrial Craf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 1970s, as the standard of living has improved socially and economically, the act of having a cup of tea attributes meaning to the life in these modern times where people seek for composure and health through inheriting what is our own cultur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tea culture, there are more places to enjoy a cup of tea and also a variety of relevant researches. Among such are making a tea table, whose pattern takes its motive from wild flowers to allow one to experience the natural beauty and in turn rest one's mind and body. This tea table was created in various sizes and patterns to meet the preference of modern taste, so as to not only take on the role of a tea table, but also serve as an interior decoration.

Not far apart from the traditional small dining tables in the functionality or shape, this tea is rather round-shaped compared to the more rigid rectangular shape to make it more comfortable for having tea, and has a lighter and more smooth shape by using the wheel molding method.

The tea table is constructed with the diameter of 45 cm and the height of 12 ~ 30 cm and the rather large top face with the diameter of over 40 cm is made of glass to make the best of the patterns within the piece.

For this piece, the wild flower patterns are directly drawn on it with a brush for a more smooth and natural expression, and the coloring paints are created with colored engobe which is made by mixing a variety of paints with steel wires and engobe (a type of clay), and partly employ red-colored glaze and cobalt as well.

For the drying process which is an issue with a ceramic tea table, rough soil mix was used to prevent cracks from drying or baking, and white glaze was used to smoothly express the rough surface of the soil mix, and a gas/electricity compound kiln was used to preserve the expression of wild flowers and the brush's natural touch.

In the making of a ceramic tea table, if the advantages such as the variety of color expressions and sanitary/permanent characteristics from the material are further improved and the issues such as weight are further researched about supplementing with steel or wood in part, making of a better tea table can be expected.

In addition, I wish that drinking tea and having a conversation on this tea table with wild flower patterns that draw from the senses of the nature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covering one's composure from busy everyday live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2,00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차(茶)문화는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뿌리 내려져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강 기호음료로 자리 잡은 차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은 신라 흥덕왕 3년 (A. D 828) 김대렴이 차 씨앗을 당나라에서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게 한 이후 그곳 사찰을 중심으로 전파된 이후 이다.註1)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사회적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것 계승에 대한 움직임이 싹트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찾고 건강에도 좋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점차 여유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됐다.

2003년경부터 웰빙이란 말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건강과는 뗄 수 없는 의미가 되면서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위해서나 바쁜 사회활동 중에서도 질 좋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고, 좋은 차를 마시며 즐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를 마시는 인구가 300만에 이르고 차 문화 시장이 무려 3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註2) 이렇게 우리의 차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발전하고 있으며 21c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차는 잠시나마 생활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 왔다. 차라고 하면 단순히 커피를 떠올리는 사람이 대다수 이었지만, 그 종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보리차, 생강차, 인삼차, 두충차, 감잎차, 홍차, 커피 등 기호음료 모두를 이르기도 한다.註3) 차 문화의 발전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고 더불어 차도구의 개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이 어

註1) 김종태 차의科學과文化, 保林社 1996. p.2

註2) 월간 Tea & People, 2003 p.15

註3) 브리테니커 사전 23, p291

떤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데 식탁이 필요한 것처럼 차를 마시는데 찻상이 필요한 것이다.

찻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상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가볍고 재료의 구입이 쉬우며 운반과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도자기로 제작된 찻상도 있다.

도제 찻상은 형태의 자유로운 성형과 유약으로 나타나는 색상의 다양한 표현이 무궁무진 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이며 내수·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註4)

찻상제작에 있어서 표면 장식의 요소로 많은 소재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를 모티브로 하여 차를 애음(愛飮)하는데 자연을 불러들여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게 하고 찻상의 기능 뿐 아니라 실내의 장식물로 사용해도 좋도록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크기와 문양으로 제작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 차 보급이 어떤 경로를 통해 되었는지, 차가 일상화된 과정은 어느시대를 통해서였는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차도구로 쓰이는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찻상으로서의 소반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찻상의 형태적 용도에 따른 특징과 변화를 자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해보며 도제찻상의 형태나 제작 방법등을 개인 작품전이나 작업실 등을 방문하여 찻상 제작에 이용된 소지나 성형방법, 유약처리, 소성 방법 등의 변화를 참고하여 실제작품을 제작하는데 기초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양을 살펴보고 도제찻상에 야생화 문양을 적용해 봄으로써 차를 마시는 데 자연을 느껴보는 즐거움을 갖게 하겠다.

찻상을 제작함에 있어 좌식문화에 기능이나 형태면에서 전래로 내려오는 소반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합한 크기의 찻상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註4) 흙의 물성을 이용한 도자재 티테이블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제갈무용 2007'

제 2 장. 본 론

제1절. 차의 근원과 시대적 배경

760년경 육우註5)가 다경(茶經)註6)을 저술할 때 파산과 협천에 큰 차나무 애길 했다.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차의 원산지는 중국 서남지구로 사천과 운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파되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50여개 국가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다.

신농註7)은 중국 삼황註8)의 한 사람으로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고 우연히 독초에 의해 중독된 걸 차 잎을 먹고 독이 제거된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 민간에 이를 널리 보급하였다 한다. 육우의 다경에서 차를 음료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신농부터 라고 적혀 있다. 세계의 음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는 160여개 국가에서 널리 음용되고 있다.註9)

처음에는 약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제례나 요리에 쓰이다 점차 보편적인 생활 음료로 정착된 기호음료이다.

차(茶)라는 글자는 중국의 당(唐)대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로 차의 의미로서 도(荼), 가(檟), 설(蔎), 명(茗), 천(荈) 등의 여러 글자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도자가 주로 사용되었다.註10)

당대 중기 이후 도에서 한 획이 빠지면서 현재의 차로 바뀌지게 되었는데 문헌상으

註5) 733년에 태어남 20세가 되던 753년부터 각지를 다니며 차를 연구하고 물을 감별하는 등 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註6) 중국 당나라 때 육우가 쓴 차에 관한 책

註7)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삼황 중 2번째 황제. 정식 이름은 염제. BC 28세기에 인신우두(人身牛頭)의 형상을 하고 태어났다고 전해짐

註8)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皇帝)를 말함

註9) 치우지핑, 다경도설, 이른아침 2003. p.15

註10) 김종태 차의科學과文化, 保林社 1996. p.17

로 육우의 다경 이후 주로 차(茶, Tea)란 글자가 사용되었다.

원래 산차화과(山茶花科) 식물인 차나무의 잎을 가공하여 마시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차라고 하는 말 자체로 동양의 차에 어원을 두고 있다.

본래의 차는 산차화과 나무의 어린 새싹을 이른 봄에 따서 양호한 불에 잘 볶아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것을 말한다.

녹차는 푸른빛이 그대로 나도록 말린 부드러운 차로 흔히 일본차를 이르고 홍차는 차나무의 어린잎을 발효시켜 녹색을 빼고 말린 것으로 끓는 물에 넣으면 맑은 홍색을 띠고 방향(芳香)이 있으며 잘게 눈이 터져 나온 차나무의 새싹을 따서 만든 차로 성고차(省古茶)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산차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註11)

「불교통사」에 의하면 "가락국시조 수로왕의 비 허씨가 천독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창원군 백월산에 심어 죽로차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보면 "興德王三年自唐迴使大廉特茶種子來王使智異山茶自善德王時有之至於比盛"이라 기록되어 있다.

"흥덕왕 3년 (서기 828년) 겨울 김대렴이 당나라 사신으로 가서 차 씨를 가져왔는데 왕이 지리산에 심게 했다고 하며 차는 이미 선덕여왕 때 (재위 632~647)부터 있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 성행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의 보주목에도 종자를 가지고 온 김대렴에 관한 지리산에 처음 심어졌다는 사적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AD 828년)

우리나라에서 차의 역사는 가야 시대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있고 삼국유사 제2권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이 자신의 외가쪽 제사에서 해마다 세시(歲時) 때면 술과 단술을 빚고 떡, 밥, 차,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하였다고 한다. 661년 3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즉위 당시에 차가 등장한다.

백제의 경우는 귀화승인 행기(行其)가 차나무를 심었다 전해지고, 신라시대에는 평민들 사이에서 주로 말차(抹茶)註12)가 생활화 되었다.

註11) 정순자, 우리나라 차에 대한 소고, 단국대 논문집, 1971, p.63

註12) 가루로 된 물에 타 마시는 차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차 문화는 오히려 최고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무신란 이후 선비들이 주도했다.

조정에 다방(茶房)이란 관청이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행사에는 으레 차가 함께 했고 팔관회, 연등회, 명절, 종묘제사, 사신맞이에서 왕과 신하에게 차를 올리고 다군사(茶軍士)라는 직함이 있어 왕의 행차 때 차도구를 지고 뒤따라 왕족에게 차를 바치는 일을 담당했으며 일반 백성 뿐 아니라 귀족, 승려를 중심으로 차 문화가 일상 생활화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넘어 오면서 불교가 배척당하자 자연히 차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소멸에 가까운 쇠퇴기를 맞게 되었고 차의 명맥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로 초의선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김종직, 김시습, 이목,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같은 분들을 꼽을 수 있다.

제2절. 차도구의 일반적 의미와 종류

육우의 다경(茶經)에는 차도구를 크게 나누어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기까지 필요한 기구와 그 차를 가루 내어 마시기 위해 필요한 기물(器物)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으며, 차 도구란 다기와 차도구를 수용한 통합적인 의미로 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차에 필요한 도구들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것들도 있으며 옛날 차도구는 금, 은, 동 등 귀금속과 돌, 옥, 토기, 옹기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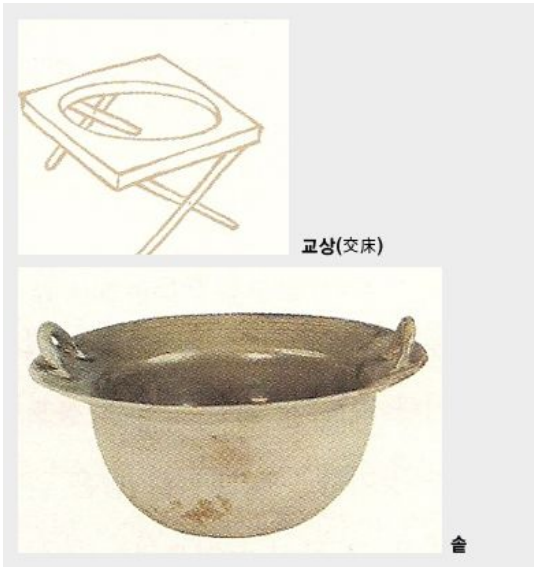
흔히 차를 종합예술이라고 하고 차도구를 예술품으로 평가하는 것도 자연의 순리와 섭리를 기초로 보고 느끼며 생각할 수 있는 기물로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금으로 살펴볼 때 도자기 계통의 차 그릇이 실용적이며 또한 차의 색, 맛을 잘 보존하고 우리의 정서와 맞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다.

「다경」, 차의 지구(之具)에 수록된 15가지는 찻잎을 따서 씻고 시루에 쪄서 절구에 찧어 쇠틀이나 나무틀의 본에 박아 덩어리 차를 만든 다음 말려서 보관하여 습기를 막아 주는 데까지 필요한 공구를 이지구(二之具)라하며 사지기(四之器)는 마른 덩어리 차를 부셔서 가루 내어 합(盒)에 보관하고 차를 끓이기 위한 풍로이며 물통, 찌꺼기통, 솥, 행주, 차사발 등 모두 24가지<표 1>로 기록되어 있고 그 명칭은 아래와 같다.

특히 사지기에는 그릇의 쓰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과 제작 방법 등을 기록하고 있어 차도구의 규범과 법칙이 성립되어 있으며 역학과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인성을 올바로 쓰는 심성과 품위를 차 하는 일(茶事)로 인해 가꾸어 가도록 만들어 졌던 것이다.註13)

<표 1> 차도구의 명칭과 모양

불 피우는 도구(4종)	차 끓이는 도구(2종)
	
차를 굽고, 갈고, 무게를 재는 도구(5종)	물을 담거나 거르거나 뜨는 도구(4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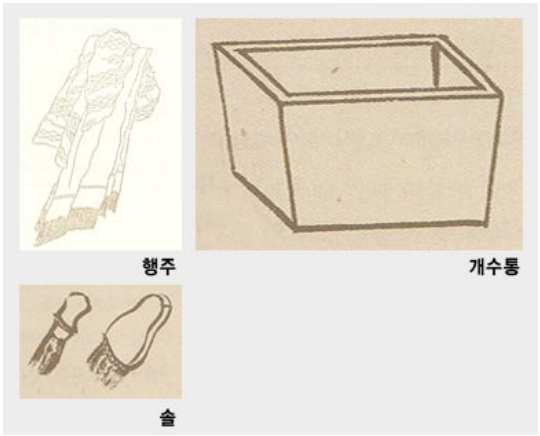
註13) 고세연 “茶의 미학” 艸衣 1993. p64~67

소금을 담거나 뜨는 도구(1종)

차를 마시는 도구(1종)

청결 도구(4종)

차를 담거나 진열하는 도구(3종)



註14)

제3절. 찻상(茶床)과 소반의 일반적 고찰

1.찻상의 역사와 종류

예기 (禮記: 제 10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예(禮)를 배우는 자가 덕기(德器)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이고 예를 행할 때 사용하는 기물의 명칭을 밝혔으며 도(道)와 기(器)는 예의 용(用)이라 하며 이것을 행신(行身)하는 도라고 하였다.」

대체로 예의 시초는 음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조(俎) 즉, 상(床)은 매우 존귀한 예기 중의 하나다. 은나라 때는 상을 구(棋)라 하며 주로 탱자나무로 만들어 썼으며 폐백 상을 매우 중요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은 「후한서(後漢書)」 부여 국조에 「음식에 조두(俎豆)를 쓴다.」 또 「위서(魏書)」 고구려 전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은 즐겨 준거하고 식(食)에 조궤註15)를 쓴다.」라고 하였던 것으로 고려 때 입식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위서」 낙랑조에서는 「음식을 변두에 담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관혼상례 때 쓰는 예기로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상을 만드는 나무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쓰는데 이미 고구려 때부터 상을 괴목註16)으로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찻상의 종류를 보면 찻상, 차도구상(茶道具床), 차쟁반(茶錚盤), 다담상(茶談床), 다과상(茶果床)이 있고, 각저총(角低塚), 현실 북벽 부부상도(夫婦像圖)와 무용총 주실 오른쪽 벽에 묘주의 생활을 그린 그림에 음식을 담은 식기를 받친 4각반이 그려져 있다.註17) 이 벽화에 그려진 4각반은 4각상판에 곧게 뻗어 내린 4개의 다리가 달려 있는데 그 그림만으로는 이것이 목반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크기는 지금의 쟁반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상 5개의 상이나 반 모두 주칠(朱漆)한 것으로 썼다. 주칠은

註14) 치우지핑, 다경도설, 이른아침 2003

註15) 책상

註16) 회화나무

註17) 소반에 관한 연구, 김원룡, <한국고고학개론>, 일지사, 1978. p.79

옻나무의 수지로 나무의 용기에 최초로 칠을 하게 된 것은 순나라 때부터이며 하나라 우왕 때에 이르러서 제기를 만들어 검은 칠을 하고 속은 붉은 칠을 하였는데 한(漢) 때 (BC 202 AD 8)에 이르러 크게 발달하였다 한다.

1988년 서울 송파 백제 고분에서 백제 전기(3세기) 때 것으로 칠기 5점이 출토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칠기 중 발견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때 구석기와 신석기 유물 615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주칠의 상(床)이나 반(盤)은 궁중의 전용물로 쓰였던 것으로 조선조 후기에 와서는 양반가에서 쓰기도 하였는데 차도구를 놓아두는 상은 거의 옻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찻상으로서의 소반

차를 마시는 일은 퍽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으며 다도라 하여 차를 끓이고, 준비하며, 마시는 데까지의 바른 예절과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일들이 방바닥에 앉아서 행해지므로 찻상의 높이가 낮고 편안해야 하며 모양새 또한 보기 좋아야 하고 품위 또한 있으면 더욱 좋다 하겠다.

찻상으로서의 소반은 대개가 사각으로 화려한 장식의 소반 등 매우 다양한 것이 많으나 그 중 궁중의 경사스러운 연회 때나 임금이 신하에게 음식을 내릴 때 쓰였던 것은 원반(圓盤)과 팔우반(八隅盤)인데 팔우반은 운반용으로 원반은 임금이 내린 음식을 먹은 후 각각 궁궐 밖으로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 한다.註18)

소반은 식기를 받치는 나무로 만든 상의 일종으로서 단순히 기물을 받치는 기능을 하지만 오래전부터 생활에 널리 쓰여 왔다. 생산지에 따라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 안주반이 유명하다. 생김새에 따라 4각반, 6각반, 8각반, 12각반 원반, 연엽반, 반월반 등으로 구분되며 모양이 특이한 것은 별반이라 부른다.

註18) 칠공예연구, 이종석,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84. p.90

<표 2> 소반의 여러 종류

찻상

호족반

화형호족반

주칠호족원반

구족반

해주반

충주반

강원반

나주반

통영반

목판소반

원반

흑칠원반

일주반

두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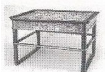
공고상

한국에서는 상과 반은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소반이라고 통칭하는데 소반은 식기를 받치고 옮기는 기능의 쟁반이면서 방안에서는 그대로 상이 되도록 긴 다리를 달고 있다. 침실, 거실, 식당이 분리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편리한 생활도구이다.註19) 크기는 일반적으로 60cm이내의 너비이며 재목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은행나무, 가래나무, 피나무, 오동나무, 소나무들이 쓰이며 다리는 안정감을

註19) 박영규, 김동우 목칠공예 솔 2005. p.120

주는 운각을 끼웠으며 개다리(拘足), 말다리(馬足), 호랑이다리(虎足) 등의 형태로 장식한다.註20)

<표 3> 전통소반과 현대소반의 흐름

전통소반			현대소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통소반전승	현대소반	현대가구디자인
		나주반	나주반		반
		해주반	해주반		
		통영반			
			공고상		
		원반	원반	원반	원반
	단칠조 (丹漆俎)				
		주칠반		소반	원반
		연엽반		연엽반	소반SB01
					
		자개반		자개반	자개반

註20) 단칠조(丹漆組)는 붉은 칠을 한 적대. 적대는 산적(散炙)을 담는 직사각형의 그릇을 뜻함.

소반은 온돌식 난방에 의한 우리나라의 생활습관에 따라 여러 가지 소반의 발달을 가져왔다.註21)

오늘날 티테이블의 입식생활로의 변환으로 인해 높이가 높아지고 무거워진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차 문화가 발달한 현재에도 좌식 찻상들은 각각의 제 멋을 부리며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표 4> 전통 소반과 현대 소반의 특성 비교

	전통소반	현대소반
형태	상판: 사각반, 다각반, 원반, 화반 다리: 구족반, 마족반, 호족반, 풍혈반, 일주반, 죽절반, 통각반	상판: 사각, 원형, 화형, 다각형 다리: 동물형, 구릉형, 버선형, 곡선형, 고리형, 각기둥형, 선형
재료	자개반, 행자반, 괴목반, 흑진철반, 외주칠반	도자재, MDF, 알루미늄, 목재,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쓰임새	궁궐반, 공고상, 막소반	밥상, 다과상, 다용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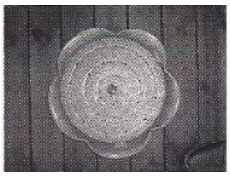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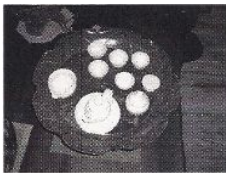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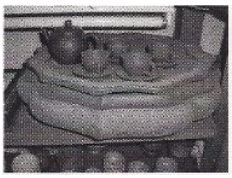
제4절. 도제 찻상의 일반적 고찰

1. 우리나라와 중국 찻상 비교

우리나라 찻상과 중국 찻상의 형태를 아래 도표를 가지고 분석하여 보면 크기면 에서는 유사한 반면, 형태에 있어서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찻상은 팔각, 원형, 연꽃형 등 다양한 면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찻상은 연꽃 중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註21)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982, p12

<표 5> 우리나라와 중국의 찻상

우리나라 찻상			
			
중국 찻상			
			

유약, 성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찻상이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유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우리나라와 중국의 찻상 비교

번호	나라	크기	유약	형태	비고
1	우리나라	Φ35	백유	연잎형	대부분 상판이 상안으로 들어감
2		Φ31	녹유		
3		Φ49	백유, 철유		
4		Φ45	백유, 흑유		
5		Φ52	백유, 철유		
6		Φ44	천목유		
7	중국	Φ40	무유	원형 삼족	대부분 상판이 상위로 올라옴
8		Φ42		팔각형	
9		Φ35		원형	
10		Φ29		원형, 연꽃형	
11		Φ55		원형, 삼족	
12		Φ57		원형, 박쥐문	

2. 여러 작가의 찻상 형태

가. 형태 분류

(1) 원형 茶床

<圖 1>심종승-蓮 다상 1

<圖 2>천미선-바늘땀찻상

<圖 3>이웅재-석류문찻상

<圖 4>이웅재-당초문찻상

<圖 5>이웅재-연당초문푼주

<圖 6>제갈무용-작품1

<圖 7>제갈무용-작품2

<圖 8>제갈무용-작품3

<圖 9>제갈무용-작품4

<圖 10>제갈무용-작품5

<圖 11>김희진 作

<圖 12>최은지 作

(2) 사각 茶床

<圖 13>심종승-蓮 다상 2

<圖 14>심종승-蓮 다상 3

<圖 15>심종승-蓮 다상 4

<圖 16>심종승-蓮 다상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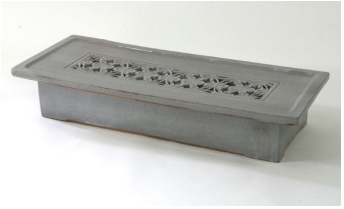
<圖 17>심종승-蓮 다상 6

<圖 18>천미선-선비찻상

<圖 19>
천미선-다듬이돌찻상

<圖 20>
천미선-팔각연꽃문양찻상

<圖 21>
천미선-부채꼴찻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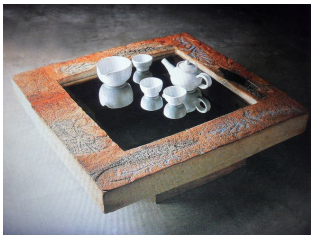


<圖 22>
천미선-꽃살문찻상

<圖 23>
이웅재-포도문찻상

<圖 24>
이웅재-무궁화문찻상

<圖 25>이웅재-찻상



<圖 26>제갈무용-작품6

<圖 27>이은상-작품1

<圖 28>이은상-작품2

<圖 29>박옥경 作

<圖 30>이충광 作

(3) 다각형 茶床

<圖 31>이동면 作

<圖 32>조주연 作

<圖 33>이세용 作

(4) 자유형 茶床

<圖 34>송팔영 作

<圖 35>손은혜 作

<圖 36>오계희 作

• 형태 - 기물의 크기는 지름 60cm 이내로 60cm, 53cm, 45cm, 37cm, 30cm 등 다양하며 찻상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높이 또한 30~40cm에 머무른다. 꽃잎, 입술, 가방, 동물, 컵, 과일 등 다양한 형태로 주로 자연에서 얻은 모양을 단순화 시켜, 원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변형시켰다.
• 성형방법 - 물레나 도판작업보다는 타래쌓기 방법에 속파기 작업을 병행하여 외관으로 볼 때 작품의 무게가 무거워 보이며 두툼해 보인다.
• 소지 - 작품 크기에서 오는 갈라짐과 주저 앉음을 고려함 때문인지 조합토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유약 - 찻상이나 테이블 느낌에 맞는 재유나 청동유, 흑유, 흑상감화장토, 동록유, 아이보리유와 조합토에 잘 맞는 백매트를 유약의 대부분으로 사용하였다.

<표 7> 형태별 제작방법 비교

	성형	소지	유약	시문기법
원형	물레성형	조합토	재유, 청동유, 산화철, 동록유, 백색매트유 등	유약닦기/뿌리기 음양각분청기법
사각형	점토판성형 속파기	상동	동록유, 아이보리유 등	음양각분청기법, 흑상감기법
다각형	점토판성형	상동	백자투명유, 진사유 등	뿌리기
자유형	복합기법	상동	진사유, 재유, 백자유, 산화철, 흑유 등	덤벙시유 안료채색

자료조사에서 보여지는 도제찻상형태의 종류로는 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원탁형, 정사각형, 부채꼴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심종승의 작품에서는 상감을 하거나 사각의 틀에 연밥과 연잎을 조각하여 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거나 또 연이라는 자연적 소재에 생동감을 주기위해 연잎을 타고 올라가는 개구리 형상을 첨가시키기도 하였다.

평평한 찻상의 상판에 연잎을 부조화한 작품도 있으며 원형의 형태는 편안함과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함과 자연을 느끼게 하려함이 아닌가 싶다.

천미선의 작품에서는 목공예 선비상의 원형을 살려 기하문양이 투각된 경칩의 한 부분을 따서 옮겨, 같은 모양을 투각했고, 당초무늬를 조각한 선비찻상, 고전적인 형태에 중점을 둔 듯한 다듬잇돌을 형상화한 찻상, 연꽃문양 찻상과 한국의 단청문양을 응용한 부채꼴 찻상 등은 부드러움과 예스러움의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라 하겠다.

이웅재의 작품 '연지 문양'에서는 표면에 화장토를 바른 후 반건조 상태에서 문양을 음각하고 문양외의 화장토를 긁어낸 후 태토의 색이 드러나게 한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지문 중에서도 국화문, 석류문, 당초문을 사용하였다.註21)

송팔영의 작품 연찻상은 기물의 크기가 다른 찻상에 비해 크고, 가마에 구웠을 때 상판의 하중을 다리 부분이 받쳐줄 수 있도록 상판과 다리 부분의 연결은 V자형의 다리를 사용하였으며 연잎과 연밥의 장식이 단조로움을 없애준다.

3. 찻상의 장단점 비교분석

찻상의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형의 성형이 용이하고 다양한 유약으로 인한 색상표현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생적이라 하겠다. 반면 제작 후의 무게가 목재나 금속재에 비해 훨씬 무겁고 제작 과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손잡이 부분이나 찻상 다리부분을 나무나 가벼운 금속 재료로 보충 해 준다면 전혀 다른 느낌의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찻상이 될 것이다.

목재 찻상에 비해 도제 찻상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찻상은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순한 테이블 용도와 장식품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도예가들에 의해 개성을 가진 도제 찻상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전승도자를 하는 공방에서 공예품이나 민예품으로 소량 생산되고 있다.

대량생산이 어렵고 제작상의 실패율이 많아 극히 소량 생산에 그치고 있으며 가격도

註20) 이웅재 도예전. 한양여자대학 2009.

비싼 것이 흠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생활공간을 좀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꾸미고 도자의 영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도제 찻상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기술 개발 및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표 8> 찻상의 장단점 비교

재료	크기(cm)	장점	단점	비고
목재	30~60	가볍다 제작이 자유롭다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한정된 색상 습기에 약하다 자유롭지 못한 형태	찻상의 대부분이 목재 찻상
도자기	30~50	자유로운 형태성형 다양한 색상표현 영구적, 위생적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제작과정이 어렵다 대량생산이 어렵다	극히 한정적으로 제작/사용
금속	50~60	견고하다. 파손의 위험이 적다	재료에서 오는 차가운 느낌 茶具와의 이질감 고급스럽지 못하고 부식에 약하다	알루미늄이 주로 사용됨

제5절. 여러 국가의 식물 문양

문양이란 인간의 미의식을 가장 순수하고 단순하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그 주제의 형식에 있어 개인이건 민족이건 간에 생활주변을 표현하는 순수한 것이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대자연의 질서에 조화롭게 순응하면서 아름답고 다양한 문양들을 창조하며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문화의 한 부분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문양에는 자연에 대한 외경과 신령스러운 정감이 깃들여 있고, 아기자기한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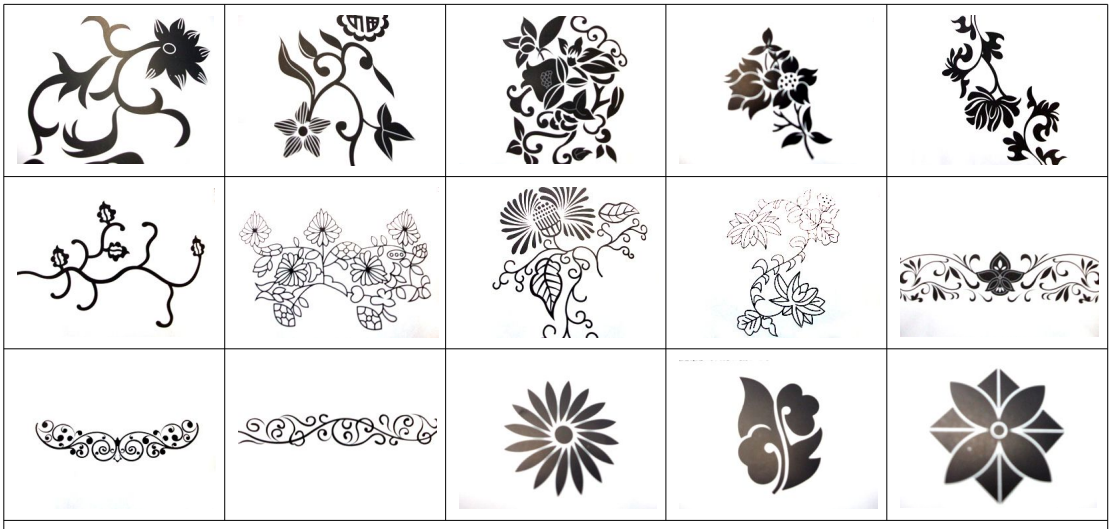
미와 정서를 다양한 문화의 하나로 발전시켜 미의식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 갈구하는 염원을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자연 속에서 현실적인 소재를 얻었으며 들꽃 문양 또 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양을 사용하면서 인위적인 전개보다는 자연의 모습처럼 흩어 뿌려놓은 편안한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註21)

1. 우리나라

우리나라 야생화문양의 몇 종류 중 도라지꽃, 금잔화, 난초, 덩굴무늬(당초문)을 살펴보면 도라지꽃문양은 깊은 계곡 들꽃 사이에서 피는 청초하고 소박하며 아름다운형태를 청화백자의 무늬나 자수에서 민화적인요소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9> 우리나라의 식물문양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야생식물을 민화적, 소박하게 표현

註22)

註21) 조선시대 여자복식에 나타난 꽃문양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의류학과 한국복식, 정혜린. 2006

금잔화 무늬에 나타난 금잔화는 여름 철 들에 갸름한 꽃잎이 한데 모여 한 송이 노란 꽃 을 피운다. 고려시대에 이 꽃 모양을 본뜬 도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옛 시인이나 화가들은 시와 그림 속에 난초꽃 무늬를 즐겨 그렸는데 난초는 특히 왕자의 기품을 나타낸다하여 더욱 사랑을 받았다. 덩굴무늬를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인동초라 하는데 이러한 무늬의 유래는 고대 이집트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덩굴무늬의 성립과 리드미컬(rhythmical)한 장식요소는 그리스 미술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초라는 용어는 근세에 이르러 중국풍, 당풍의 덩굴이라는 의미로 생겨났지만 그것은 서역문화가 중국을 거쳐 우리미술에 유입 되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 신라 시대 이후 기와 벽돌 등 의 무늬로 사용되어 화려함의 극치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전통 문양은 우리조상들의 생활 속에 묻어있던 전통적 정서표현 이라 하겠다.

2. 일본

일본의 문양은 유럽의 문양과는 달리 기하학적인 패턴이 주종을 이룬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아프리카와 같이 토속적인 혹은 극히 추상적인 경향을 띤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일본 문양은 도래문양(渡來紋樣)으로서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것을 그대로 혹은 일본 풍토나 양식에 어울리게 변형에서 유통시킨 것들이다. 즉 극동지역(極東地域)인 중국과 한국의 고유 문양들을 많이 변조하였다 하겠다.

일본문양을 관찰해 보면 중국의 당초문양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문양의 구성면에서도 조선시대의 회화적인 풍류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22) 한국전통문양집, 안그라픽스, 안상수 1994

<표 10> 일본의 식물문양

도래문양으로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며 자국 전통양식으로 변형

註23), 註24)

그래서 일본문양에는 일본 특유 작품은 소수에 불과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양, 혹은 동남아시아 쪽의 문양과의 혼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에 와서는 일본 고유의 다양한 문양들이 나와 특징을 강조하기도 하고 더러는 여러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

3.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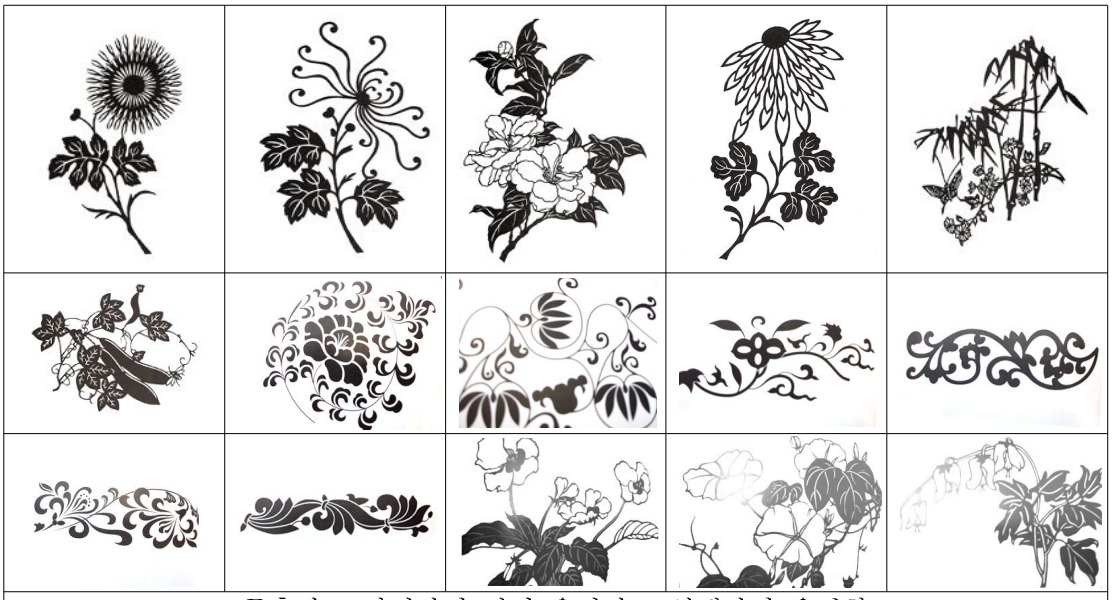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당왕조(618~906) 시대부터 존재해온 종이를 문양으로 잘라내는 절지공예(切紙工藝) 문양이 발달하였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위만을 사용해 제작하기도 하고 칼, 정, 바늘로도 잘라 다양한 색채로 염색되어 여러 분야에 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한

註23) 陶藝の繪紋樣, 昭和 62年, 長谷部滿彦, 求龍堂. p.7~p.9

註24) 일본전통문양, Katano Takasi 著, 도서출판 이종, 2005

다. 주어진 공간 내에서 식물의 덩굴과 나뭇가지들의 선들을 때로는 중후하고 화려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여 문양을 나열하였다.

<표 11> 중국의 식물문양



중후하고 화려하며 선이 유려하고 섬세하며 웅건함

註25)

4. 그 외 국가

유럽 각국의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발달된 시기는 아르누보시기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 문양의 특색을 간단히 살펴보면 1891년 영국 윌리엄 모리스註26) 의 나팔꽃과 수선화, 버나드 리치註27)의 야생 식물문양, 20세기 초 프랑스의 시네라리아註28)를 모티브

註25) 중국전통문양, Theodore Menten 著, 도서출판 이종, 1999

註26) William Morris, 1834.3.24~1896.10.3 영국 시인 겸 공예가

註27) Bernard Howell Leach, 1887.1.5~1979.5.6 영국 도예가

註28) cineraria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두해살이풀

로 한 식물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반복되는 양식, 19세기말 독일의 장식용 플레이트에 나타나는 야생 들꽃 문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문양의 조화와 통일성이 보여 진다. 어느 한 장식, 양식만의 특징으로 지칭되지 않고 기능에 의해 결정된 형태로 현대적 문양을 취하여 아르누보註29) 공예가들에 의해 새로운 장식 기법이 창출되었다 가식이 없고 자연주의적인 솔직한 모티브를 특색으로 하고 있다.

<표 12> 그 외 국가의 식물문양

아르누보 형식의 식물문양

.註30), 註31)

註29) 아르누보(프랑스어: Art Nouveau, IPA: [aʁ nu vo])는 19세기 말 에서 20세기 초에 성행했던 유럽의 예술 사조이다.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을 뜻한다. 아르누보는 자연물 - 특히 꽃이나 식물 덩굴에서 따온 장식적인 곡선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註30) 世界紋樣大典, 이영수 감수, 도서출판 藝林, 1994

제6절. 작품제작 및 설명

1. 작품계획

차를 마시는 여가를 갖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며 즐기기도 하지만 바쁜 현대생활에서 나만의 여유를 갖기 위한 나 혼자 만의 행다(行茶)도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쓰임새에 알맞은 찻상을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양으로는 정신적 피로함을 풀기에 도움 되는 우리나라 자생 야생화를 모티브로 하였다. 그리고 굳이 찻상으로 쓰지 않을 때에도 생활의 공간속에서 장식적 의미로 쓰임이 되도록 하였다.

기능이나 형태면에서 전래로 내려오는 소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차를 내어 마시기에 편안하도록 딱딱한 느낌의 사각형 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원형의 형태로 제작하고, 찻상의 크기로는 1~4인용까지 다양하게 제작하여 도제찻상의 적절한 크기를 조절하여 제작한다.

문양으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 선각양감註32), 인화문상감註33) 또는 화장토를 발라 손으로나 칼로 긁어 문양을 내는 것 등의 양각이나 음각기법을 쓰고 있는데 본 작품에서는 자연을 옮긴 듯한 야생화 문양을 붓으로 기물에 직접 그림으로써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발현되도록 한다.

성형방법에서는 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물레기법과 도판기법, 타래쌓기를 병행하였다. 기물의 형태와 문양에 따라 투명유, 아연유, 백매트, 흑유 등 다양한 유약에 덤벙시유 또는 분무시유를 하고 1루베 가스가마와 가스, 전기 혼합가마를 사용한다.

註31) 아르누보전통문양, Ito Keechy 著, 도서출판 이종, 2005

註32) 선각상감: 문양을 조각도로 긁어낸 다음 화장토를 사이에 밀어 넣은 후 표면의 화장토를 긁어내는 방법.

註33) 인화문상감: 건조되지 않은 기물 표면에 무늬도장으로 인화문을 찍고 붓으로 화장토를 칠한 다음 굽칼로 긁어내는 기법 - 김병규 도자공예 2002 p168

구분	제작 방향	비고
찻상의 형태	여러 작가들의 작품 참고 찻상의 특성상 부드러운 원형 중심으로 제작 상판의 경우는 별도 제작 고려	원형, 다각형, 연잎형
찻상의 크기	다양한 크기로 제작 (1~4인용)	30 ~ 50 Cm
문양	야생화 중에서 친근한 종류 중심으로 10여 종 - 잔대, 산오이풀, 어경퀴, 현호색, 복주머니란꽃, 금낭화, 제비붓꽃, 참취꽃, 연꽃, 할미꽃	붓으로 표현
성형	물레기법, 도판기법, 타래쌓기	
유약	야생화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유약 고려	백매트, 투명유, 아연유, 청자유
소성	소지와 유약의 특성에 맞는 가마 선택 - 전기/가스 혼합 가마, 가스 가마	2차: 환원소성, 3차: 산화소성

2. 작품제작과정

가. 소지

1~2인용 찻상은 야생화의 특징을 잘 표현하기 위해 소성 후 밝은 색상을 갖는 카올린註34)을 많이 함유한 백자토나 분청토를 사용하였고, 3~4인용 찻상은 소성시 수축이나 균열 등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강한 산청백토나 조합토를 사용하였다.

나. 유약

백매트유 , 투명유, 아연유등의 유약에 고화도 안료를 사용하였고, 시유방법으로는 분무시유, 덤벙시유 등을 선택하였다.

註34) 카올린(kaolin): 중국의 가오링[高陵]에서 많이 산출되었으므로 고령토라 불리게 되었다. 고령석(카올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가 주성분으로, 장석류가 탄산, 물에 의한 화학적 풍화작용을 거쳐 생성된다. 순백색 또는 약간 회색이며 도자기의 원료로, 백자, 분청사기, 청자상감자기에 사용된다. 양질의 고령토는 철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하고 밝은 색을 띄게되며 얇은 그릇을 만들기에 적당하다. 한국에서는 흔히 백토(白土)라고 하는데, 경남 하동(河東) 지방에 질이 좋은 백토가 많이 생산된다. - 두산백과사전

다. 성형 및 건조

작은 1~2인용 기물은 물레성형만으로 하였고, 40cm가 넘는 기물은 성형 중에 주저앉아 실패율이 높아서 물레성형을 하였다. 처음 2/3는 한 덩어리의 소지를 쓰고 나머지는 윗부분 1/3은 타래쌓기를 한 후 고루 펴준 다음 물레성형으로 형태를 잡았고 판성형은 1~2인용 뚜껑에 사용되었다.

작품의 크기에서 대체로 밑바닥 부분의 건조가 느려서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작품을 부분적으로 위치를 바꿔서 통풍시키거나 밑바닥에 나무조각을 받쳐 골고루 건조가 되도록 하였으며 기온과 습도가 건조에 큰 영향을 주므로 기물이 클수록 서두르지 않고 건조되도록 서서히 장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라. 소성

작품제작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800℃에서 8시간 초벌 소성 후, 1,250℃까지 11시간 재벌소성하고, 안료를 덧입혀 3차 소성을 한 작품은 800℃로 6시간 소성하였으며, 전기가마에서 산화소성과 가스가마에서 환원소성을 병행하였다.

3. 작품설명

작품 1 : 잔대 찻상 (3~4인 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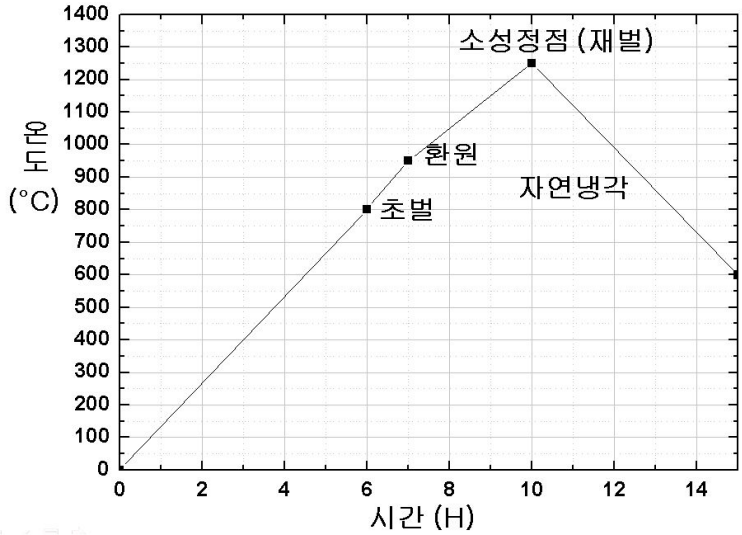
• 문양 : 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사삼(沙蔘), 딱주, 제니라고도 한다. 연한 부분과 뿌리를 식용한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사삼이라고 하며 진해, 거담, 해열, 강장, 배농제로 사용한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 소지 : 산백토
• 성형 : 물레 성형을 한 후 기물의 크기에서 오는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천을 덮고 그늘에서 천천히 60일 이상 건조하였다.
• 유약 : 투명유를 전체적으로 덤벙 시유한 다음 철화로 가장자리 선을 잡고 진사유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 유약의 배합률

(단위: %)

투명유	장석	석회	와목	규석	
	50	30	10	10	
진사유	장석	규석	석회석	탄산바륨	산화아연
	50	17	4	8	21

탄산바륨 대신 탄산리튬($LiCO_3$)을 2~4% 대체시켜 유약의 용융상태(흘러내림)를 안정시킬 수 있다.
• 소성 : 기물의 위치는 가마 상단에 쟁임하고, 가스가마에서 950℃에서 환원시켜 온도 1,250℃까지 총 10시간 소성. 1,200℃에서 소성을 끝내도 되었으나 진사유가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50℃ 정도 추가하였다.

• 소성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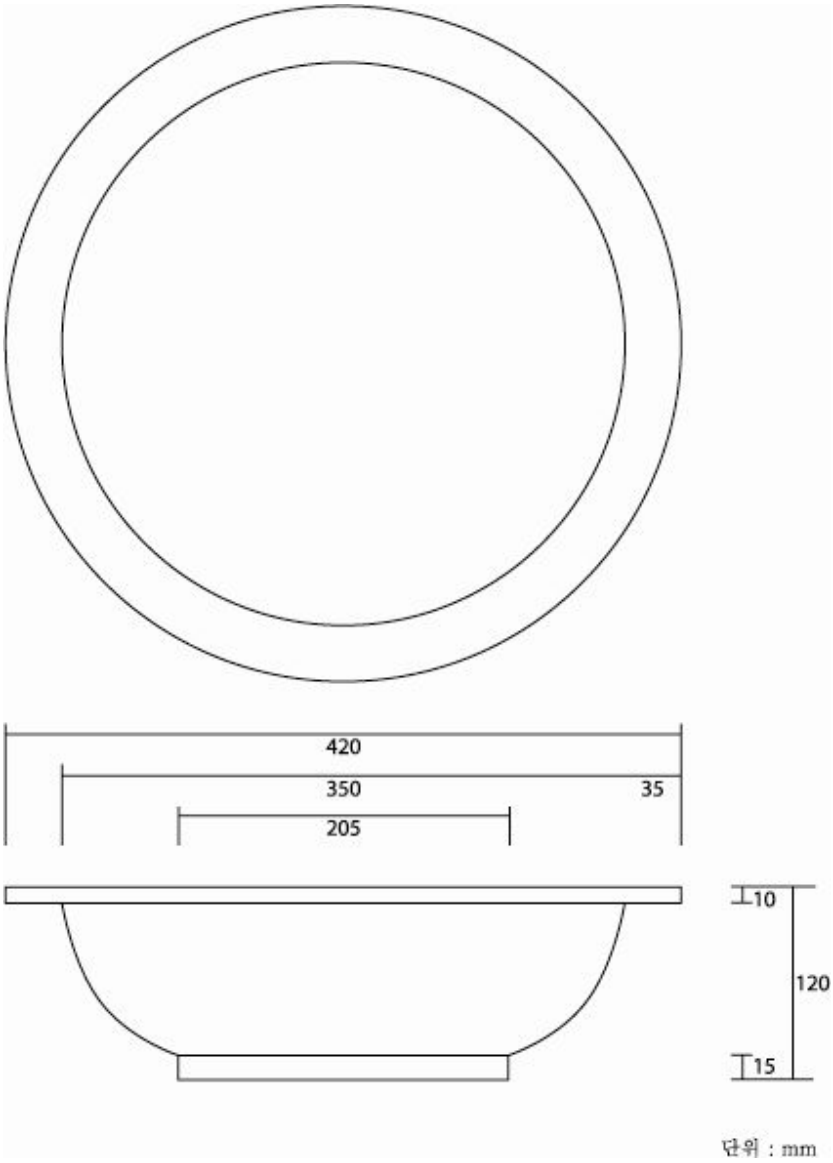


이 작품의 진사는 백유로 사용하는 유약에 산화동(Cu_2O)을 첨가하여 환원 소성해 붉은 색을 내는 진사를 얻었고 동의 첨가량에 따라 소성도 까다롭고 성공률 또한 낮다. 다른 작품에서는 진사유의 온도 조정 실패로 유약이 모두 흘러 내려버려 실패했다. 이러한 진사유는 발색의 온도가 높아서 소성은 반드시 환원을 하고 온도도 일반 다른 유약보다 조금 높게 잡았다. 소성온도는 1,250℃ ~ 1,280℃ 정도가 적합하다.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1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2 : 산 오이풀 찻상

(1) 산 오이풀 찻상 2-1 (1~2인 用)

• 문양 : 산 오이풀 (장미과, Sanguisorba hakusanensis)

높은 산의 중턱 이상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로 8, 9월에 홍자색 꽃이 피며 꽃이삭이 밑으로 처진다. 어린 싹은 식용하고 관상용으로 심으며 뿌리를 지혈제로 사용한다. 한국(중부 이북), 만주에 분포한다.

• 소지 : 백자토

• 성형 : 물레 성형하여 40일정도 그늘에서 천을 씌워 천천히 건조하였다. 뚜껑 부분은 도판 작업 후 위에 손잡이를 달아 열고 닫기 편리하게 하였고, 안에는 차도구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1~2인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성형하였다.

• 유약 : 덤벙시유를 하였을때 하회안료인 코발트가 약간 번짐을 보였기에 때문에 그림을 그린 후 투명유를 분무시유 하였다.

붉은색 안료에 화장토를 1%정도 섞고, 그 위에 코발트로 표현하였으며, 풀의 일부분을 붉은색과 녹색 유약으로 3차 소성에서 그려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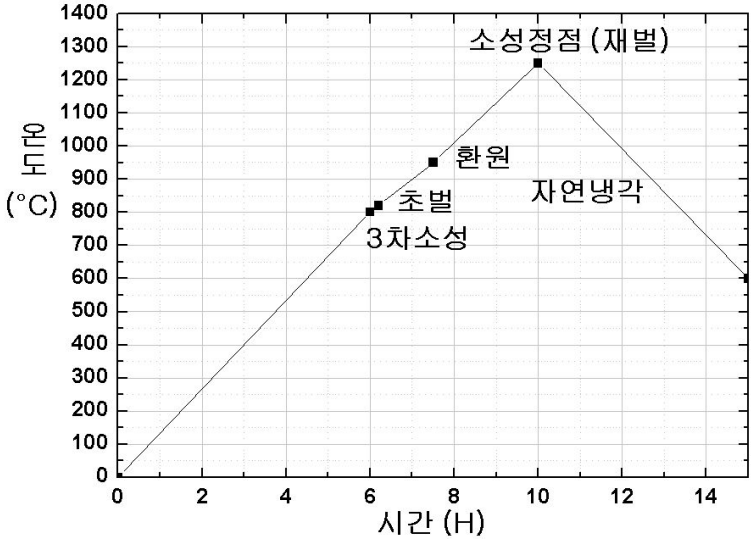
• 유약의 배합률

(단위: %)

투명유	장석	석회	와목	규석
	50	30	10	10

• 소성 : 초벌 후 재벌에서 1,240℃ 가스•전기 가마 혼합에서 소성하였고, 약간의 발색이 저조하여 3차 소성은 800℃에서 저화도 상회안료를 사용하였다.

• 소성곡선



• 문양전개 및 시문

(2) 산 오이풀 찻상 2-2 (3~4인 用)

• 문양 : 산 오이풀 (장미과, Sanguisorba hakusanen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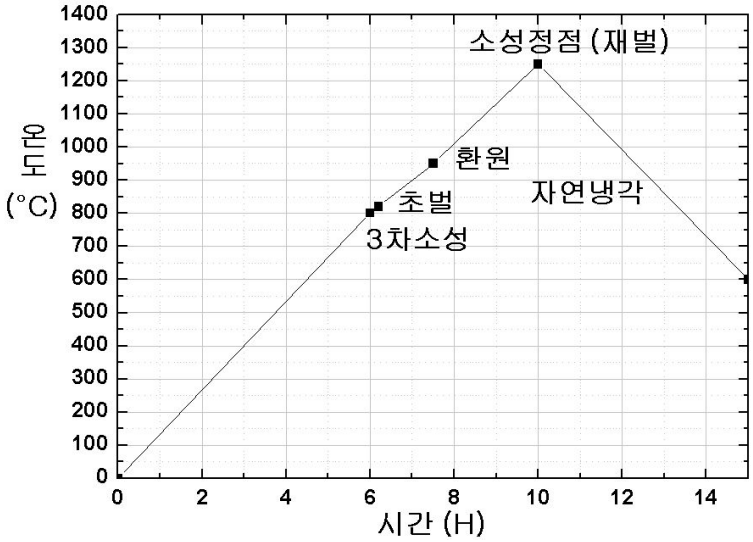
• 소지 : 산백토

• 성형 : 물레 성형.

• 유약 : 아연유. 코발트 • 진사유약 그림. 콤푸레샤를 이용한 분무시유

작품의 크기를 고려하고 문양이 안개속에 쌓인 느낌을 주기 위해 분무시유로 부분적인 농담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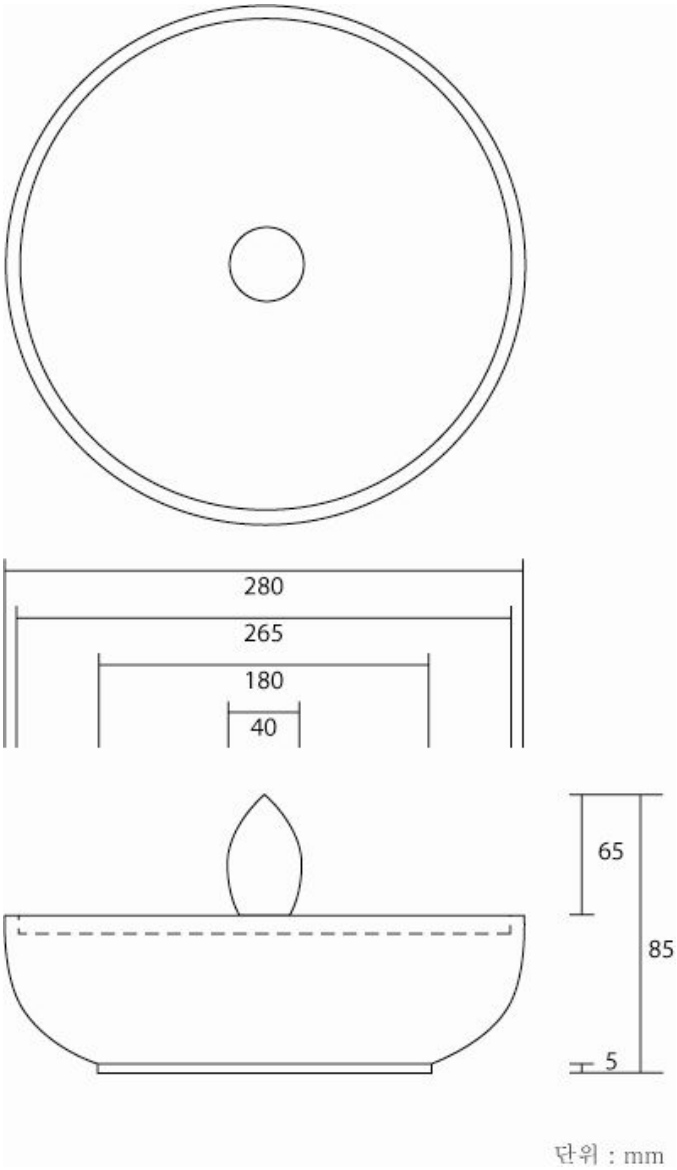
- 소성 : 가스가마 1,250℃. 10시간. 환원.
- 소성곡선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2-1

<작품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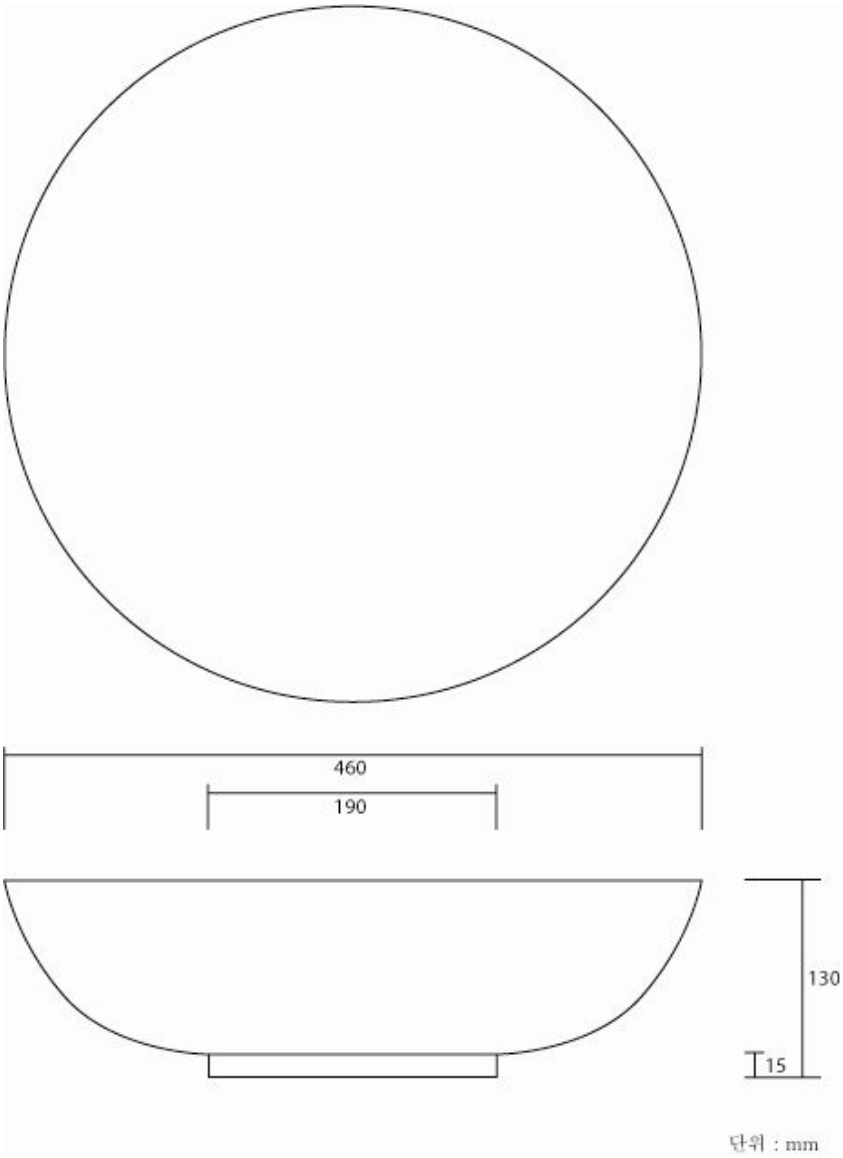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2-2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3 : 현호색 찻상 (1~2인 用)

• 문양 : 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Turtschaninovii)

산기슭이나 숲 속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 10~20㎝ 높이로 보라색 또는 분홍색 입술 모양의 꽃이 피는데 뒷부분은 기다란 꿀 주머니로 되어있다.

한방에서는 덩이줄기를 정혈제 , 진경제 및 진통제로 쓴다. 한국 및 중국 동북부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분포한다

• 소지 : 백자토

• 성형 : 물레 성형. 뚜껑은 도판 성형하였으며 구멍을 뚫어 차나 도구를 뚜껑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열고 닫기 편리하게 하였다.

• 유약 : 붉은색 • 코발트색 유약 사용. 투명유 사용. 덤벙시유.

붉은색 유약이 2차 소성에서 발색이 저조하여 3차소성에서 저화도 상회안료로 보완하였다.

• 유약의 배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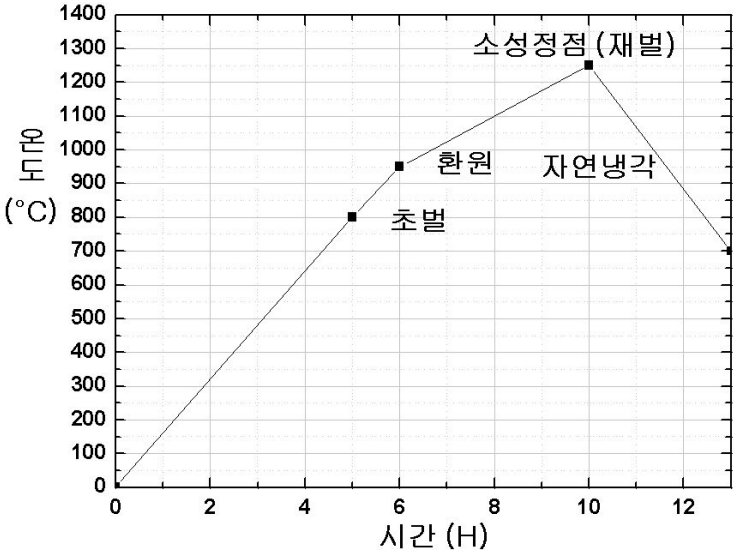
투명유	장석	석회	와목	규석
	50	30	10	10

• 소성 : 가스 • 전기 혼합 가마 사용.

800℃ 초벌, 1,240℃ 재벌, 800℃ 3차 소성하였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소성을 하게되어서 기물의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350℃까지는 가마 문을 조금 열고 약 3시간 정도 소성하다가 950℃에서 환원을 걸고 1,240℃에서 종료하였다. 소성시간은 10시간이며, 약간의 붉은 색 발색이 저조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800℃에서 안료 추가 후 3차 소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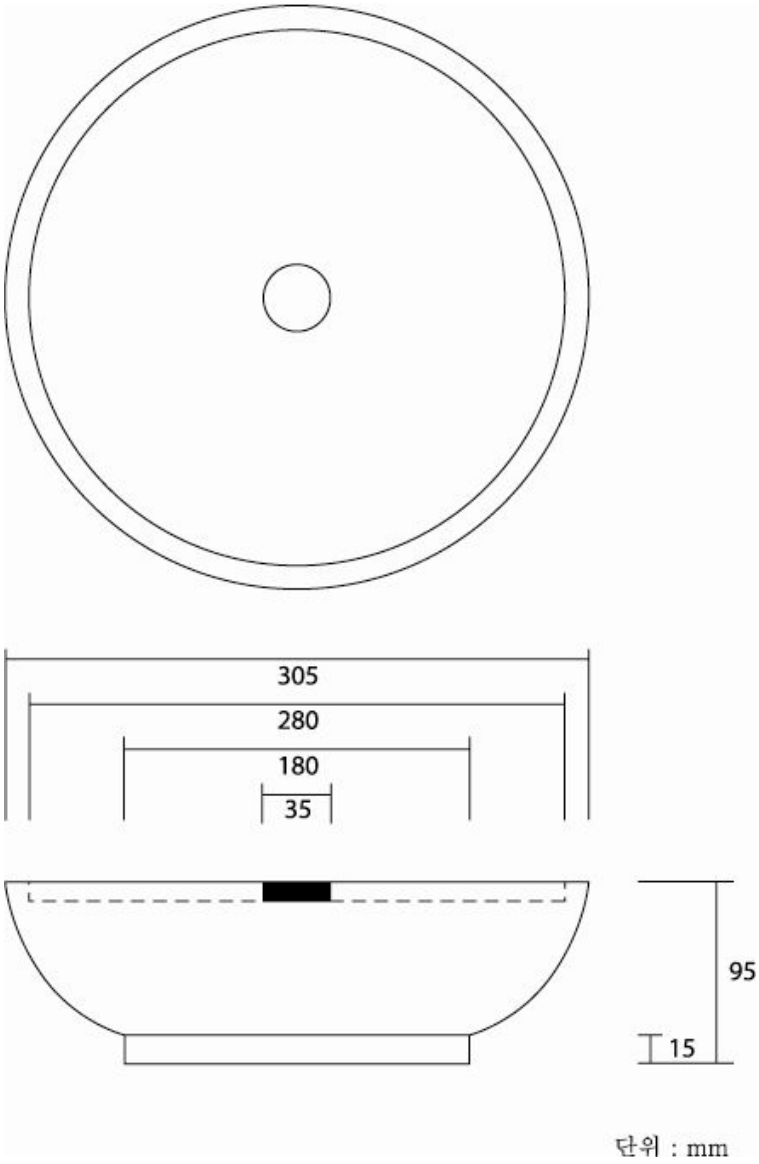
• 소성곡선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3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4 : 엉겅퀴 찻상

• 문양 : 엉겅퀴 (국화과,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가시나물이라고도 한다. 산이나 들에서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고 높이 50~100cm이고 전체에 흰 털과 더불어 거미줄 같은 털이 있다. 꽃은 6~8월에 피고 자주색에서 적색이다. 가지와 줄기 끝에 두화가 달린다. 한국·일본·중국 북동부 및 우수리에 분포한다. 잎이 좁고 녹색이며 가시가 다소 많은 것을 좁은잎엉겅퀴(var. nakaianum), 잎이 다닥다닥 달리고 보다 가시가 많은 것을 가시엉겅퀴(var. spinosissimum), 백색 꽃이 피는 것을 흰가시엉겅퀴(for. alba)라고 한다.

• 소지 : 산백토

• 성형 : 물레 성형하여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늘에서 천을 씌워 서서히 30일 동안 건조시켰다.

• 유약 : 밑그림을 코발트유와 진사유로 그린 이후, 아연유를 전체에 입혔다. 초벌구이 후 하회(下繪)註1)하고 덤벙시유 보다는 콤퓨레샤로 분무 시유함. 분무시유 시 농담의 차이를 두어 유약의 자연스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 유약의 배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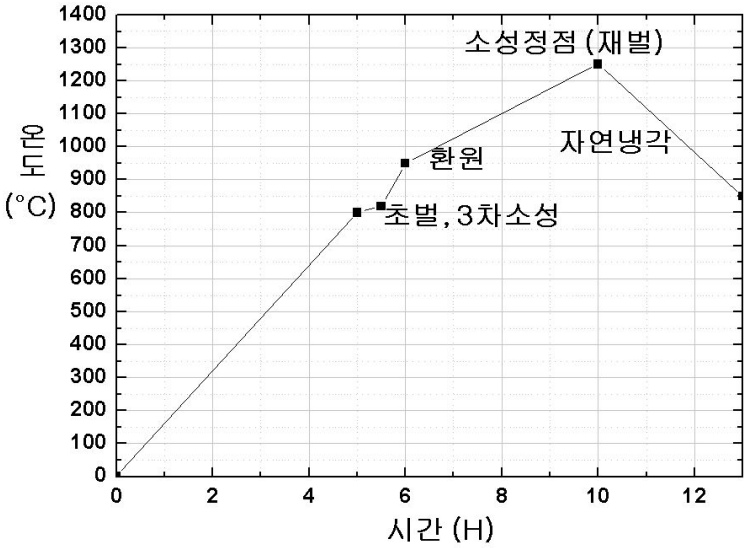
(단위: %)

투명유	장석	석회석	활석	카오링	티탄	아연	규석
	43.9	17.7	5	19.5	6	6.9	1.1
진사유	장석	규석	석회석	탄산바륨	산화아연		
	50	17	4	8	21		

註1) 하회(下繪): 유약을 입히기 전에 안료로 미리 그림을 그리는 것. 초벌구이 전에 실시하는 경우와 초벌이 끝난 후에 하는 경우가 있다. 코발트에 의한 것과 제2 산화철을 혼합하여 만든 철회 등이 있다. 김병억, 도자공예 태학원 2002 p176

• 소성 : 가스 가마에서 약간 높은 온도인 1,250~1,260℃로 소성함. 진사유가 녹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였고, 950℃에서 환원하고 10시간 소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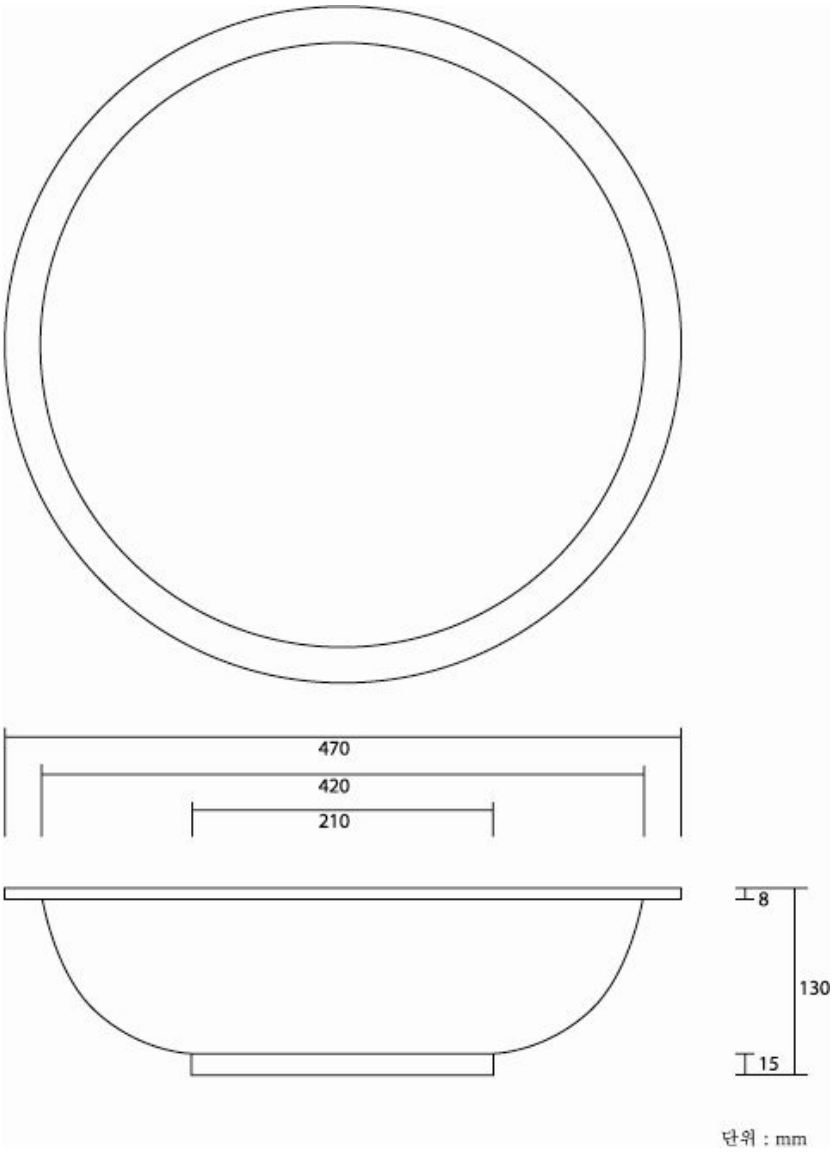
• 소성곡선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4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5 : 복주머니란꽃 찻상 (3~4인 用)

• 문양 : 복주머니란꽃 (난초과, Cypripedium Macranthum)

산의 숲속이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로 5~6월에 달걀크기 만한 흰꽃 또는 분홍색 꽃이 핌. 요강꽃, 작란화, 개불알꽃 이라고도 하며, 한국(제주도 제외), 일본, 중국, 헤이룽강, 사할린섬,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복주머니란꽃은 1996년 산림청과 임업연구원이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방에서 전초(全草)를 가을에 캐어 햇볕에 말렸다가 이뇨, 거어(祛瘀), 소종, 류머티즘, 타박상 등에 약용하며 꽃은 말린 후 분말로 만들어 지혈에 사용한다

• 소지 : 산백토

• 성형 : 물레 성형과 타래쌓기 병행. 처음 2/3는 한 덩어리의 소지를 쓰고 나머지는 윗부분 1/3은 타래쌓기를 한 후 고루 펴준 다음 물레성형으로 형태를 잡았다.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40일간 그늘에서 천을 씌워 서서히 말렸다.

• 유약 : 코발트유와 진사유로 그림을 그린 후 아연유를 콤푸레샤로 분무시유 함. 분무시유때 농담을 다르게 하여 유약이 변화 있게 표현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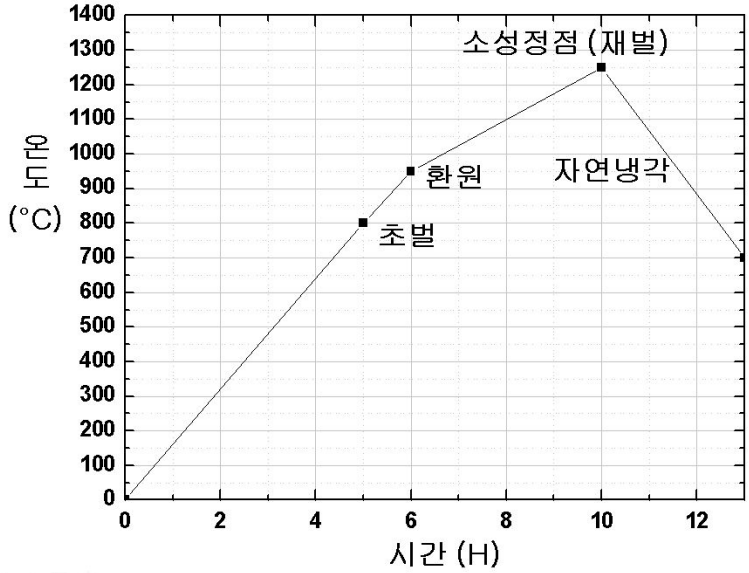
• 유약의 배합률

(단위: %)

아연유	장석	석회석	활석	카오링	티탄	아연	규석
	43.9	17.7	5	19.5	6	6.9	1.1
진사유	장석	규석	석회석	탄산바륨	산화아연		
	50	17	4	8	21		

• 소성 : 가스 가마에서 약간 높은 온도인 1,250~1,260℃로 10시간 소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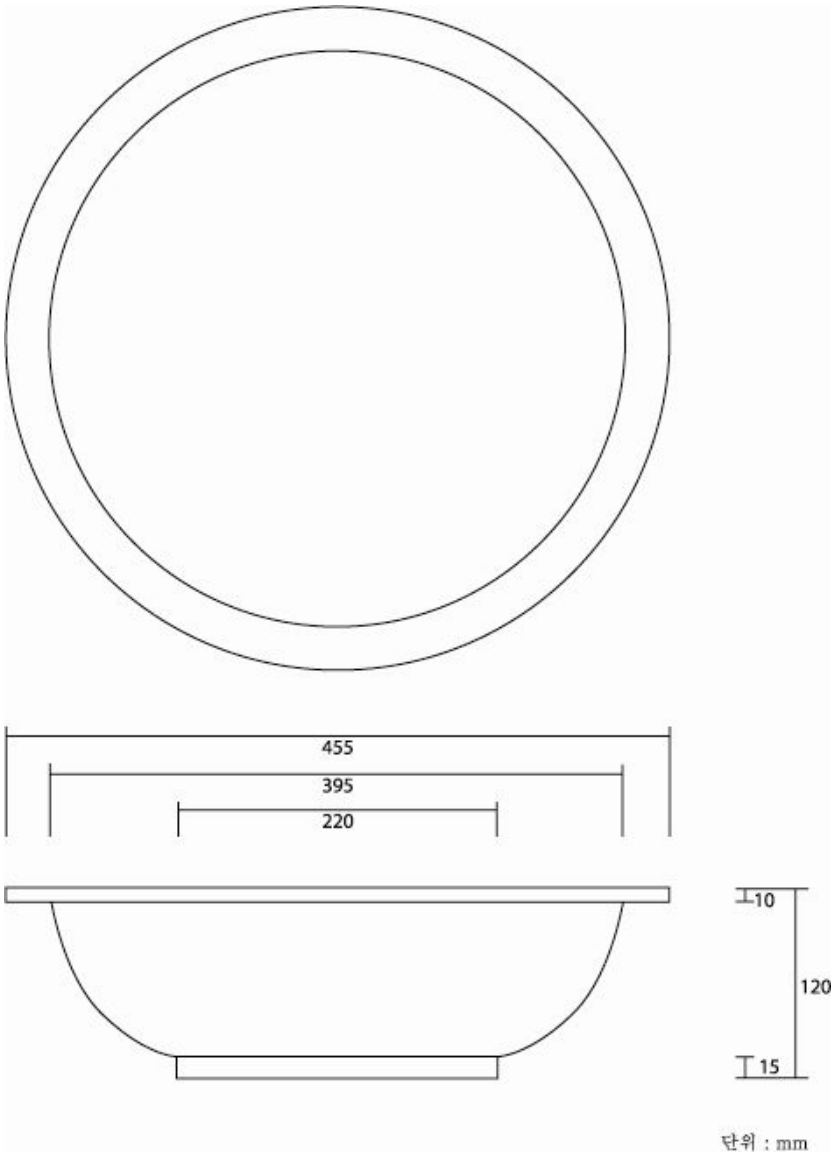
• 소성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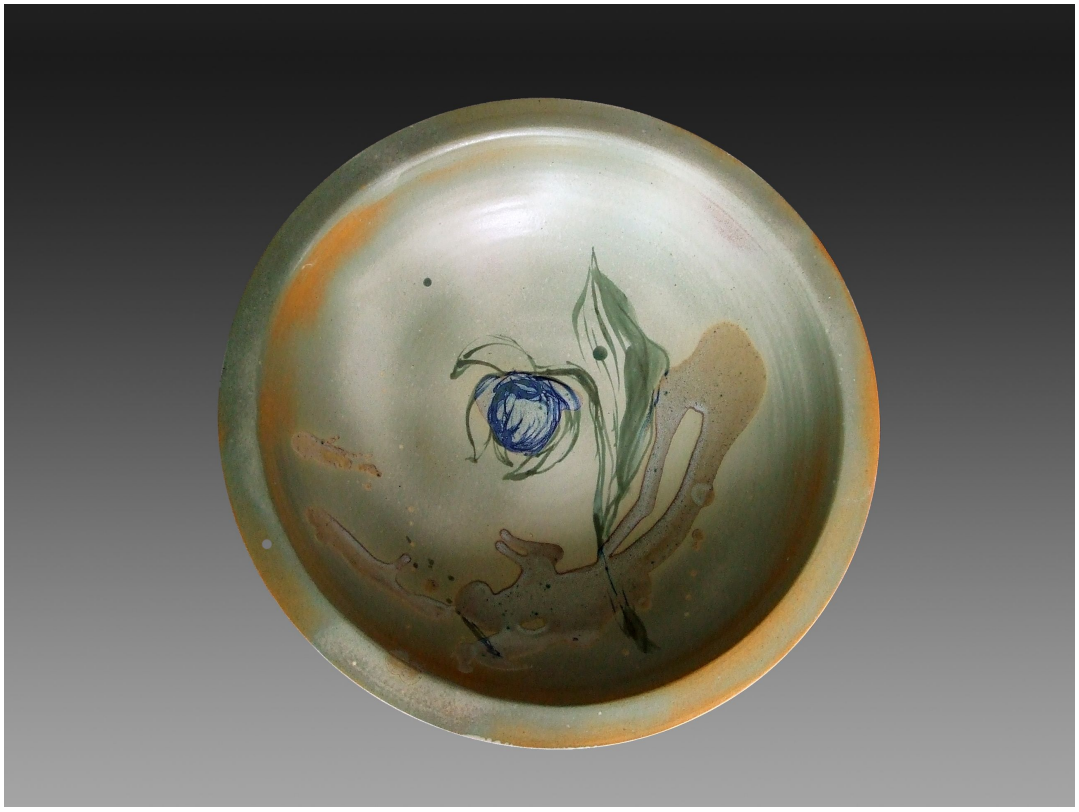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5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6 : 금낭화 찻상 (2인 用)

• 문양 : 금낭화 (현호색과 Dicentra spectabilis)

산지의 돌밭이나 계곡에서 자라는 여러해 살이풀. 30~50cm 높이로 자람. 5, 6월에 휘어진 줄기 끝에 주머니 모양의 납작한 붉은색 꽃이 핌. 중국 원산의 귀화식물이지만 토종식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옛날 여자들이 지니고 다니던 주머니와 모양이 닮은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정원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야생화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마 꽃이 아름다워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주변에 이를 심고 아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 설악산, 지리산 등 숲속에서 야생으로 자라 꽃을 피우는 금낭화를 만날 수 있다.

• 소지 : 조합토

• 성형 : 물레 성형. 40일 간 서서히 건조시켰다.

• 유약 : 백매트유를 전체적으로 분무시유한 다음 금낭화의 빨간색을 포인트로 하여 바람에 날리는 듯한 꽃을 표현하기위해 Cobalt, Red, Green 안료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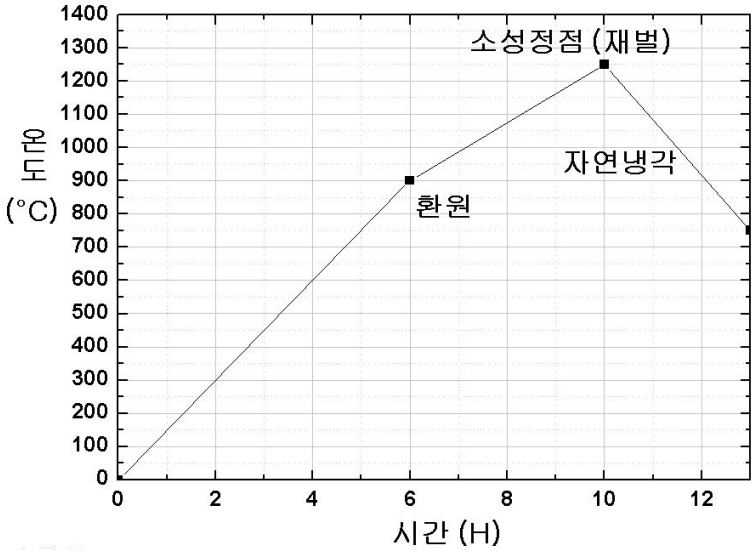
• 유약의 배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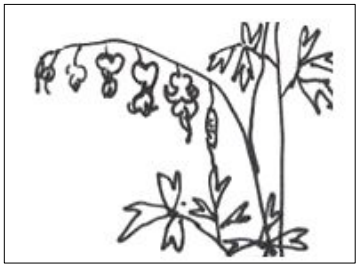
백유(매트)	장석	백토	석회석	탄산바륨	규석	ZnO
	26	18.6	14	21.5	18.2	1.2

• 소성 : 전기, 가스 혼합가마사용. 950℃에서 환원 걸고 1,250℃에서 10시간 소성하였다.조합토는 높은 온도에서도 찻상 위판이 휘지 않았고, 가열정도가 부드럽게 진행되는 전기, 가스 혼합가마에서는 붉은 색이 잘 보존되었으며, 백매트유와 조합토의 결과로 자연스러운 문양을 얻을 수 있었다.

• 소성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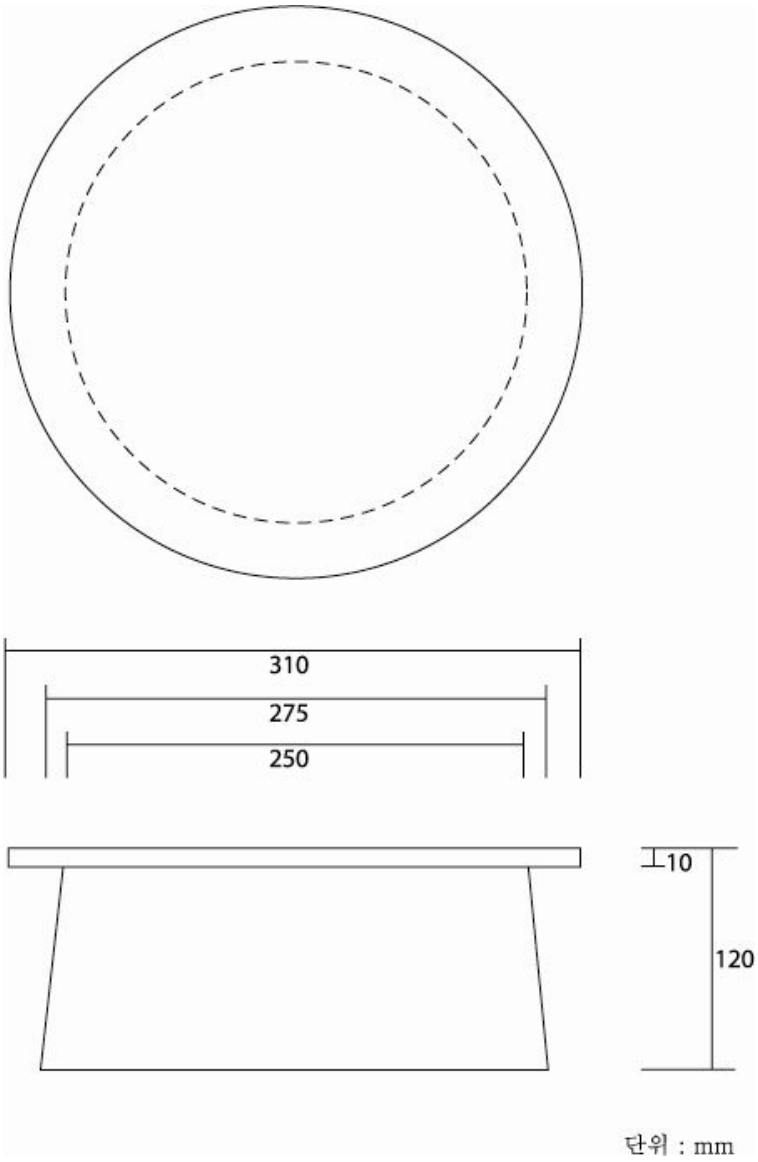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6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7 : 제비붓꽃 찻상

• 문양 : 제비붓꽃 (붓꽃과 Iris laeviata)

지리산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풀. 뿌리줄기는 갈색 섬유로 덮이고 줄기는 곧게 서며 높이 60~120cm로서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지기도 한다. 꽃은 5~6월에 피고 꽃줄기 끝에 3개씩 달리며 짙은 자주색이다. 관상용으로 이용하며 많은 원예품종이 있다. 한국(지리산)·일본·중국·시베리아 동부 등지에 분포한다. 장식성이 두드러진 그림을 그리는 일본의 화가인 오가타 고린 (尾形光琳, 1658년 - 1716년 7월 20일)의 작품 중의 하나인 《제비붓꽃》은 2004년 11월 새롭게 발행된 5,000엔권 지폐에 실려 있다.

• 소지 : 조합토

• 성형 : 물레 성형. 그늘에서 천을 덮고 20일간 서서히 건조시켰다.

• 유약 : 백매트유를 전체적으로 분무시유 한 다음 Cobalt, Red, Green 안료로 그렸다.

• 유약의 배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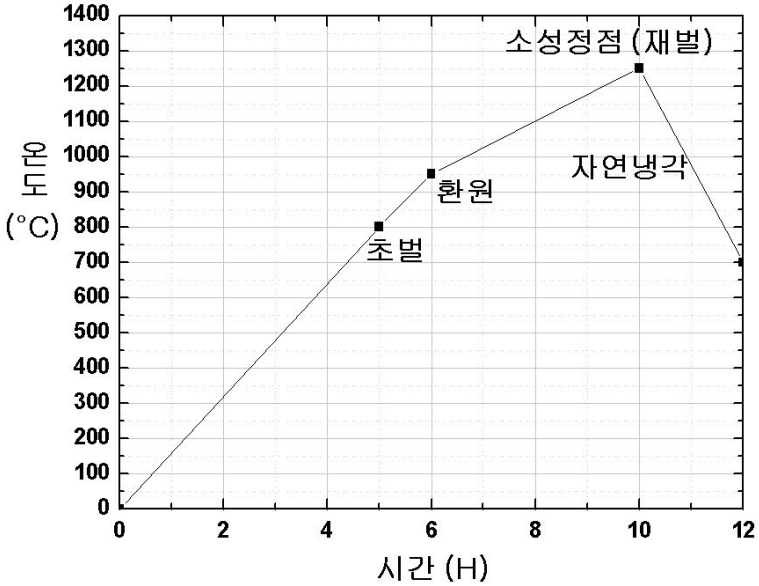
(단위: %)

백유(매트)	장석	백토	석회석	탄산바륨	규석	ZnO
	26	18.6	14	21.5	18.2	1.2

• 소성 : 전기, 가스 혼합가마사용. 950℃에서 환원 걸고 1,250℃에서 10시간 소성.

붓으로 그린 문양에 유약이 잘 흡수되었고, 붓터치가 잘 살아나서 도자기가 아닌 종이나 캔버스에 그린 그림처럼 세밀한 부분이 잘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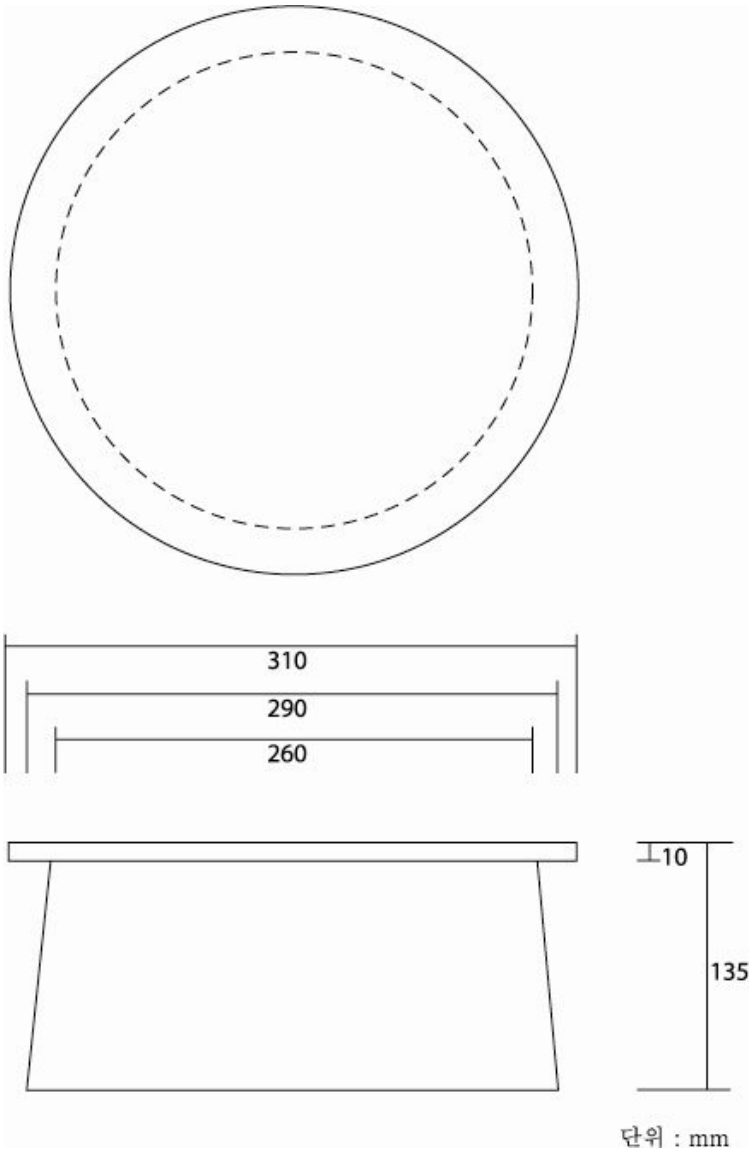
• 소성곡선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7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8 : 참취꽃 찻상 (1인 用)

• 문양 : 참취 (국화과 Aster Scaber)

뿌리잎은 자루가 길고 심장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굵은 톱니가 있음. 봄에 돋는 어린 순을 취나물이라고 하며 식용한다. 한국 , 일본 , 중국 등지에 널리 분포한다.

국화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는 60여종이 있으며 이중 24종을 식용가능하다고 한다. 참취, 개미취, 각시취, 미역취, 곰취 등이 있는데 그중 참취의 수확량이 제일 많고 살짝 데쳐서 쓴맛을 없앤 후에 무쳐 먹는다.

• 소지 : 분청토

• 성형 : 물레 성형. 10일정도 서서히 그늘에서 숙성시켰다.

• 유약 : 백매트유 사용. Cobalt, Yellow, Green 안료 사용. 분무시유 하였다.

• 유약의 배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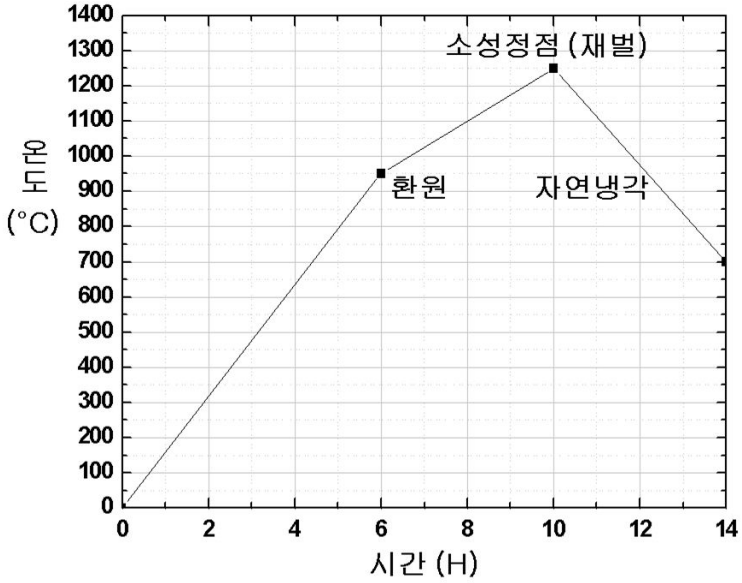
(단위: %)

백유(매트)	장석	백토	석회석	탄산바륨	규석	ZnO
	26	18.6	14	21.5	18.2	1.2

• 소성 : 전기, 가스 혼합가마사용. 950℃에서 환원 걸고 1,250℃에서 10시간 소성하였다.

조합토와 같이 소성하였으나 백매트유가 조합토에서는 유약 처리가 잘 되었으나 분청토에서는 과다한 핀홀(pin hole)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Yellow 색상은 날아가 버리는데 이 작품에서는 꽃잎의 부분에 색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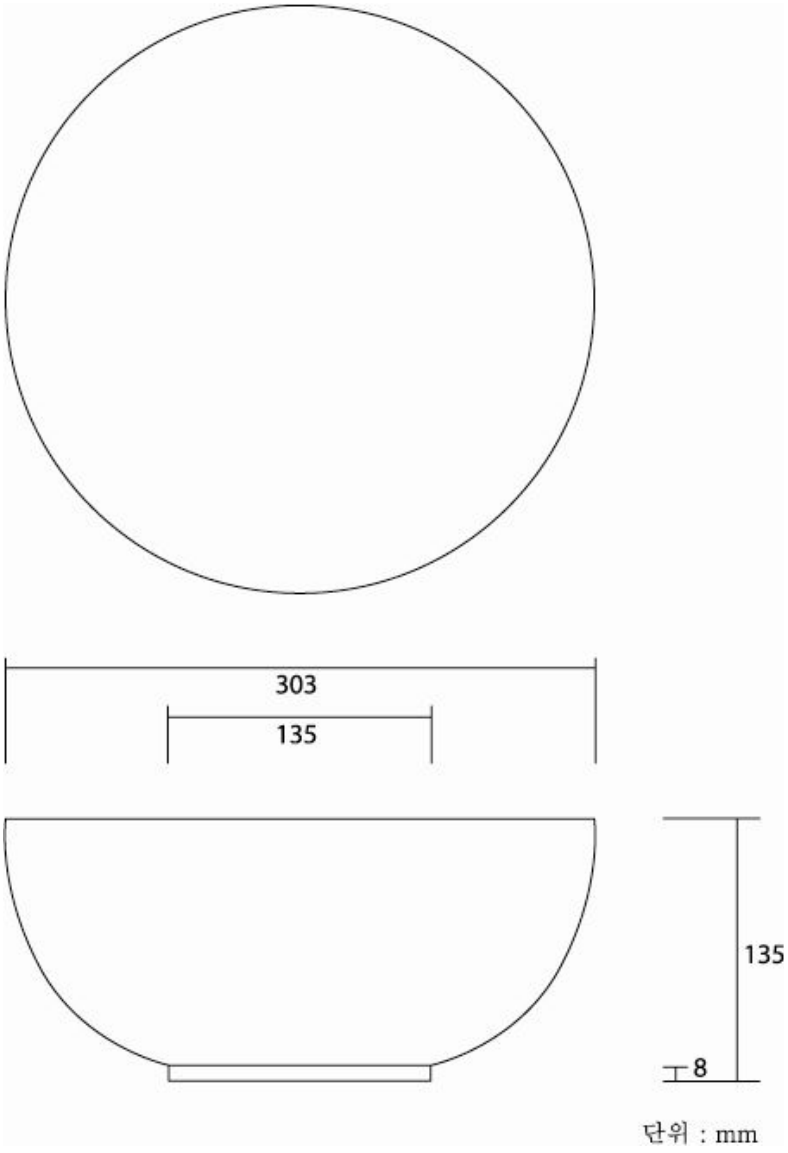
• 소성곡선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8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9 : 연꽃 찻상

(1) 연꽃 찻상 9-1

• 문양 : 연꽃 (수련과 Nelumbo nucifera. GAERTNER)

꽃은 분홍이나 흰색으로 7, 8月에 꽃이 핀며 식용과 약재로 사용한다. 아시아 남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가 원산지이다. 종자의 수명은 길고 2천 년 묵은 종자가 발아한 예가 있다. 잎은 수렴제, 지혈제로 사용하거나 민간에서 오줌싸개 치료에 이용한다. 땅속줄기는 연근(蓮根)이라고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 생채나 그 밖의 요리에 많이 이용한다. 뿌리줄기와 열매는 약용으로 하고 부인병에 쓴다.

• 소지 : 분청토

• 성형 : 물레성형. 30일간 그늘에서 서서히 건조함. 기물 안쪽에 유리를 받치는 받침돌기를 3곳에 고정시켰다.

• 유약 : 청자유를 덤벙시유 한 후 코발트 안료에 화장토를 약간 섞어서 그림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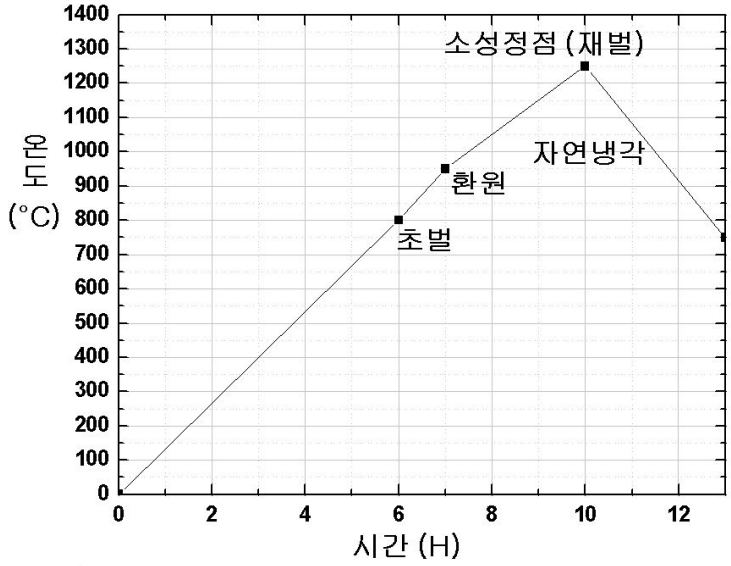
• 유약의 배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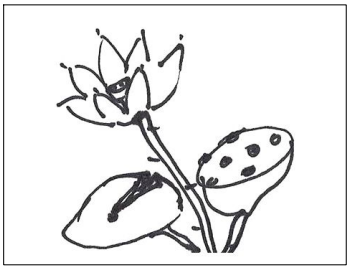
청자유	규석	장석	대리석	카올린	와목점토	산화 제이철	산화크롬
	28.7	37.4	19.5	14.1	2.0	1.2	0.05

• 소성 : 전기, 가스 혼합가마사용 초벌 800℃ 6시간 재벌 1,250℃ 10시간 소성하였다.

• 소성곡선



• 문양전개 및 시문



(2) 연꽃 찻상 9-2

• 문양 : 연꽃

• 소지 : 산백토

• 성형 : 물레성형. 40일간 그늘에서 서서히 건조시킴. 찻상의 상판을 8각형으로 성형.

• 유약 : 흑유로 덤벙시유 한 다음 진사로 연꽃그림을 그린 후 철사로 부분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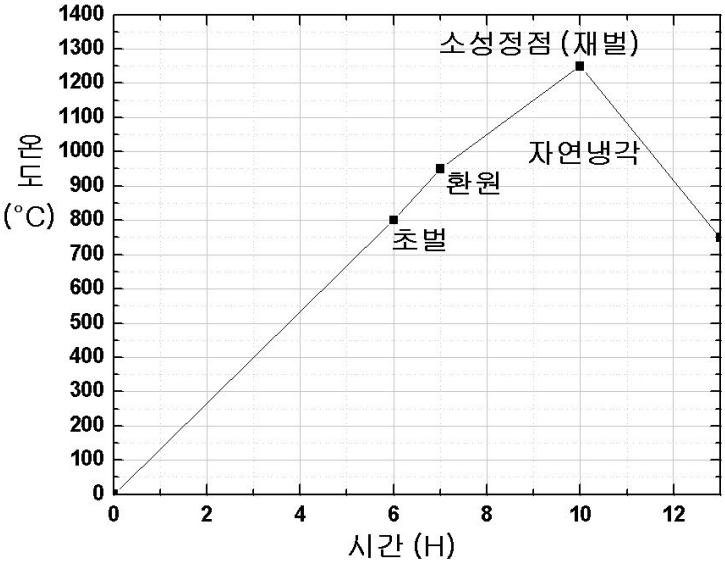
• 유약의 배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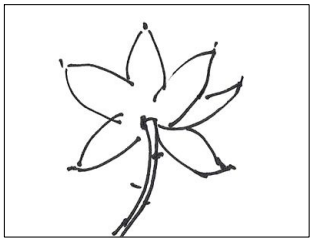
흑유	장석	백토	석회석	규석	철
	36	15	14	2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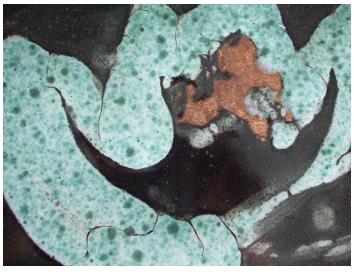
• 소성 : 가스 가마에 950℃에서 환원시켜 온도 1,250℃까지 총 10시간 소성하였다.

• 소성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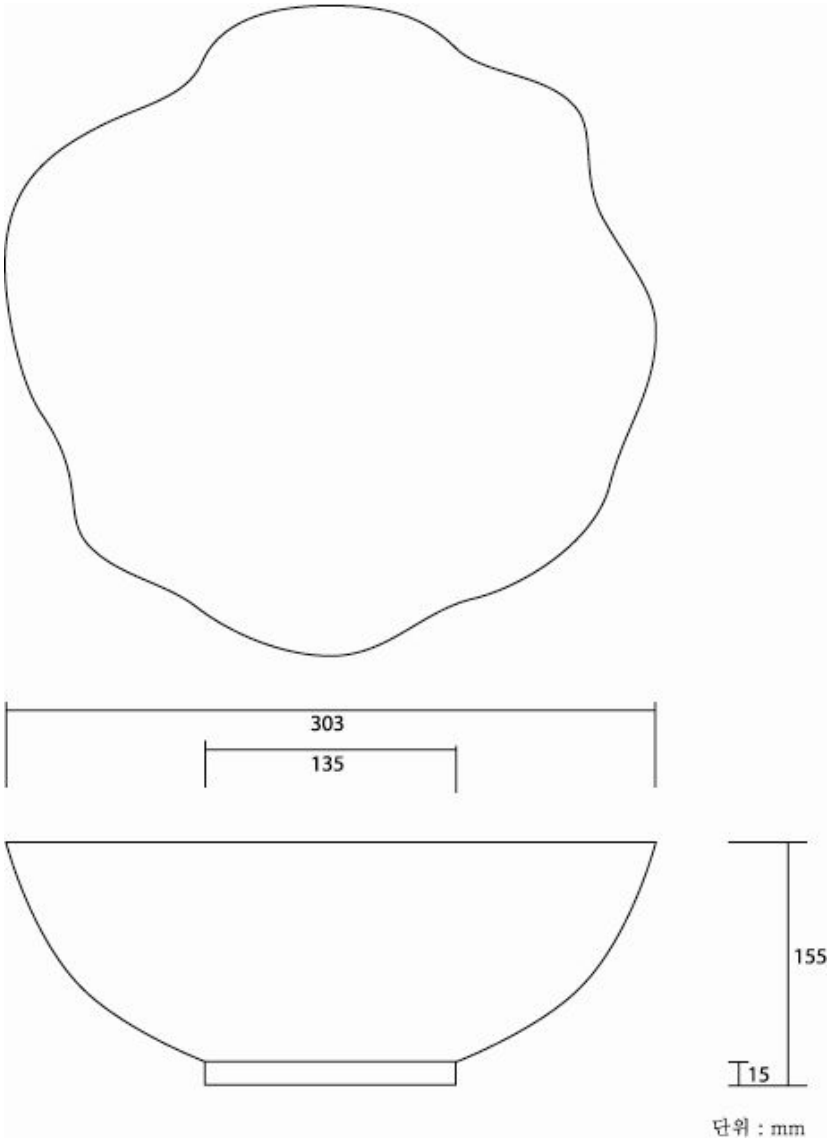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9-1

<작품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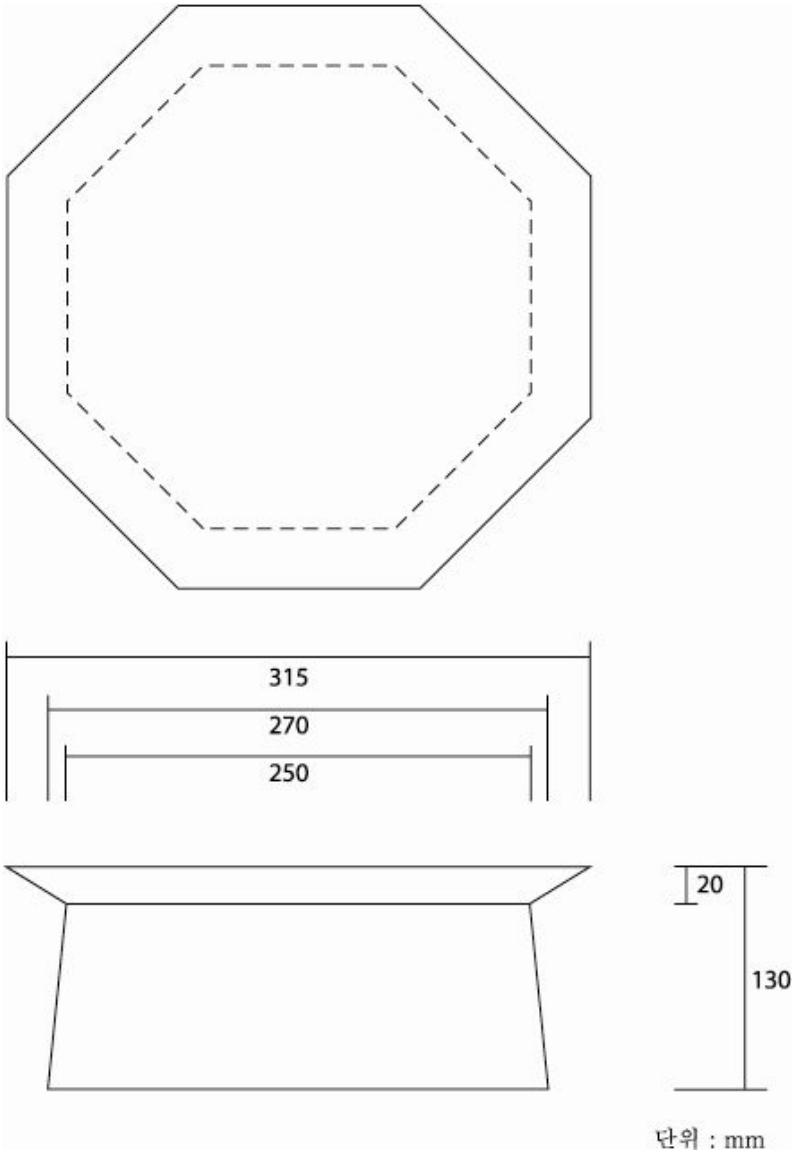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9-2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작품 10 : 할미꽃 찻상

• 문양 : 할미꽃 (미나리아재비과 Pulsatilla Koreana)

양지쪽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 25 40cm 높이. 노고초(老姑草), 백두옹(白頭翁)이라고도 한다. 흰 털로 덮인 열매의 덩어리가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같이 보이기 때문에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독식물이지만 뿌리를 해열, 수렴, 소염, 살균 등에 약용하거나 이질 등의 지사제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학질과 신경통에 쓴다. 전설에 의하면 손녀의 집을 눈앞에 두고 쓰러져 죽은 할머니의 넋이 산골짜기에 핀 꽃이라 한다. 한국, 중국 북동부, 우수리강, 헤이룽강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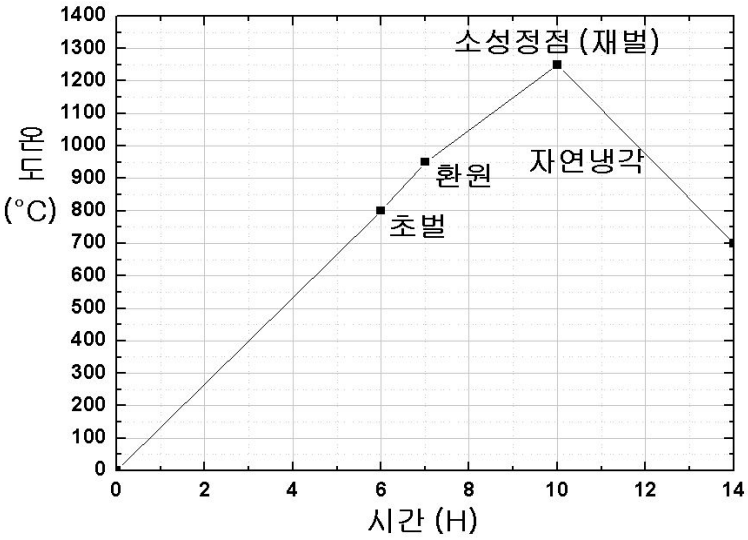
• 소지 : 산백토
• 성형 : 물레 성형 후 그늘에서 40일간 서서히 건조시켰다.
• 유약 : 철사와 진사유로 그림을 그린 후 투명유로 덤벙시유 하였다.
• 유약의 배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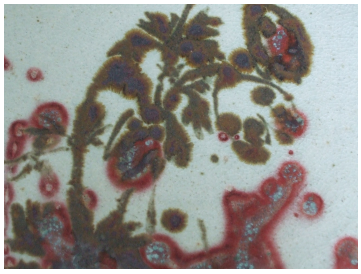
투명유	장석	석회	와목	규석
	50	30	10	10

• 소성 : 가스 가마에 초벌온도 800℃로 6시간 소성 후 900℃에서 환원하고 1,250℃에서 10시간 재벌소성 하였다.

• 소성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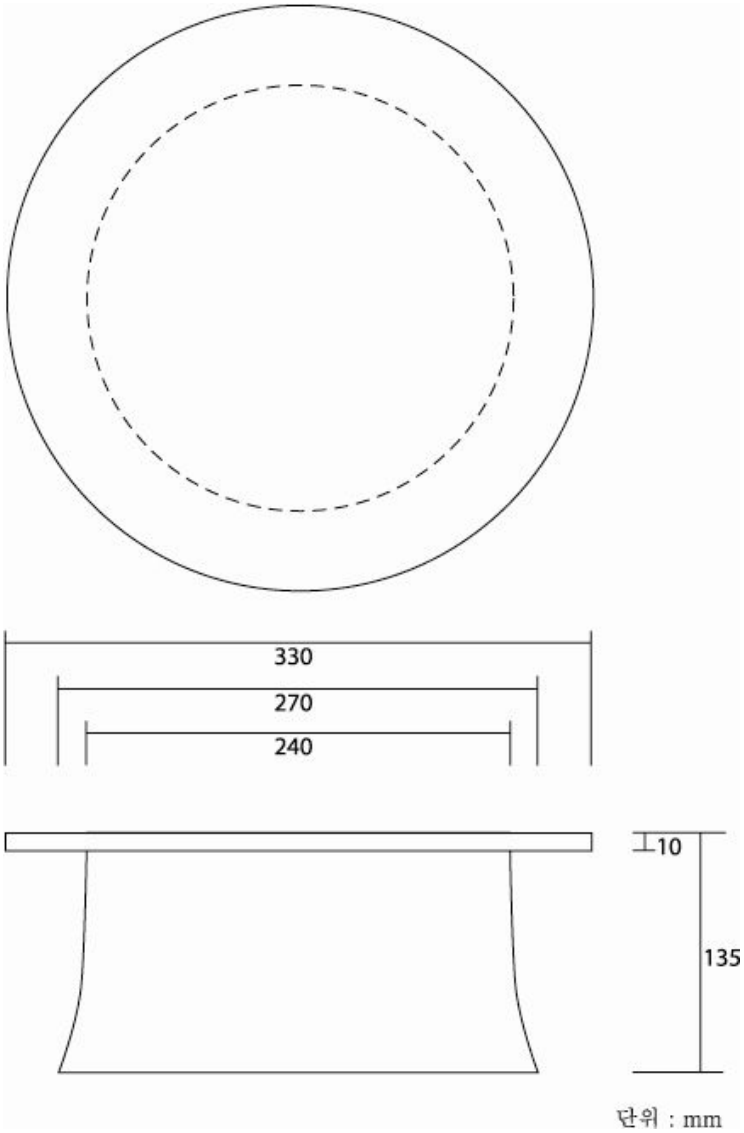


• 문양전개 및 시문



작품 10

<작품도면>



<완성작>

<디스플레이 예>

제 3 장. 결 론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점차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일이 많아지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고, 각종 산업공해와 사회 활동에서 받고 있는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차(茶) 문화가 여가의 대표적인 일상이 되었다.

따라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온/오프라인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단순히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차문화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찻상 등 새로운 차 도구의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찻상은 목재가 주재료지만 흙이라는 재료를 통하여 새로운 찻상을 제작하고자 했으며 문양에 있어서도 그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야생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찻상의 크기를 1~2인용과 3~4인용을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도제 찻상의 제작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조합토를 사용한 결과 건조시나 소성시 갈라짐을 방지할 수 있었고,

둘째, 유약으로 백매트유를 사용함으로써 조합토의 거친 면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었고,

셋째, 다양한 색상의 표현을 위하여 가스, 전기 혼합가마를 이용하여 야생화의 느낌을 잘 표현해 주는 색과 꽃이나 줄기부분의 자연스러운 붓터치를 살릴 수 있었으며

넷째, 재벌과정에서 문양 표현이 부족한 부분은 3차 소성을 함으로서 색상과 느낌을 살릴 수 있었다.

다섯째, 3~4인용 기물에서 성형, 건조 등 모든 제작과정상 크기의 문제로 건조시 균열이 자주 발생하였다.

도제 찻상의 성형과 소성, 무게 등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1~2인용 크기의 찻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제 찻상의 제작에 있어서 색상표현의 다양성, 재질에서 오는 위생적, 영구적인 장점을 살리고 무게 등의 문제는 철, 목재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한다면 좋은 찻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자연느낌을 끌어들인 야생화 문양의 찻상에서 담소하며 차를 마시고 바쁘게 쫓기는 생활에서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세연, 『茶의 미학』 초의, 1993
김병억, 『도자공예』 태학원, 2002
김원룡, 『소반에 관한 연구』<한국고고학개론> 일지사, 1978
김종태, 『차의 과학과 문화』 보림사, 1996
박영규/김동우, 『목철공예』 솔, 2005
박영규,『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982
안상수, 『한국전통문양집』안그라픽스, 1994
이영수 감수, 『世界紋樣大典』, 도서출판 藝林, 1994
이종석,『칠공예연구』,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84
정순자, 『우리나라 차에 대한 소고』 단국대논문집, 1971
치우지핑, 『다경도설(茶經圖說)』 이른아침, 2003
長谷部滿彦, 『陶藝の繪紋樣』, 昭和 62年, 求龍堂

Ito Keechy, 『아르누보전통문양』도서출판 이종, 2005
Katano Takasi, 『일본전통문양』 도서출판 이종, 2005
Theodore Menten, 『중국전통문양』 도서출판 이종, 1999

<논문>
심종승 "연의 형태를 이용한 도자제 다상 개발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4
이웅재 "이웅재도예전" 한양여자대학, 행원 갤러리, 2009
정혜린 "조선시대 여자 복식에 나타난 꽃 문양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한국복식, 2006

제갈무용 “흙의 물성을 이용한 도자제 티테이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산업디자인대학원, 2007
천미선 “도제 찻상 개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06

<웹사이트>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